10.15686/fkl.2024..63.149 OPEN ACCESS

번역의 수행성과 젠더 재현의 역학

-로맨스 판타지 웹툰의 문화적 재구성

이행미
숙명여자대학교 인문학연구소 HK연구교수

목차

1 웹툰 번역의 특수성과 현지화라는 과제
2 로맨스 판타지 장르의 경계와 수용의 유동성
3 독자의 젠더 감수성이 이끄는 번역의 효과
4 서구 문학과의 접속과 젠더 재현의 재구성
5 번역의 우연성과 젠더 서사의 새로운 가능성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6A3A03063902)

국문초록

이 글은 로맨스 판타지 웹툰 「언니, 이번 생엔 내가 왕비야」와 영어 번역본 「I'm the Queen in This Life」를 중심으로, 번역 과정에서 젠더 재현이 변화하며 생성된 문화적 의미를 분석한다. 캐런 버라드의 행위적 실재론을 활용하여, 웹툰 번역이 다양한 번역 행위자들이 얽혀 의미를 생성하는 수행적 행위임을 논의하였다.

로맨스 판타지는 낭만적 사랑과 여성 주체성을 그리는 장르로,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여성혐오적 재현을 문제화하는 새로운 서사적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 글은 서구 중세 배경의 로맨스 판타지 웹툰이 글로벌 독자층과 만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화적 맥락의 재구성을 살펴본다. 번역 과정에서 여성혐오적 표현이 완화되는 방식은 원텍스트의 직접적 어조를 약화시키는 한편, 그림텍스트와 상호작용하면서 추가된 영어권 문학의 상호텍트스적 개입은 새로운 의미를 생성한다.

「I'm the Queen in This Life」의 번역은 더 나은 삶을 희망하는 여성들의 보편적 정동이 다양한 문화적 맥락에서 변주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는 글로벌 문화 시장의 우연한 효과이면서도, 번역 행위에 개입하는 다양한 힘들의 상호작용이 새로운 의미 생성의 가능성을 보여준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국문핵심어: 로맨스 판타지, 웹툰, 번역, 행위적 실재론, 문화적 재구성, 젠더 재현, 여성혐오

1 웹툰 번역의 특수성과 현지화라는 과제

전 세계적 차원의 문화적 교류 확산과 디지털 미디어 발달에 따라, 한국에서 시작된 웹툰(webtoon)이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다. OTT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영상 콘텐츠의 원천 텍스트로서의 가치와 디지털 미디어 이용의 급격한 증가는 웹툰의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웹툰 시장의 규모는 세계적으로 볼 때 출판만화에는 미치지 못하나, 문화콘텐츠로서의 성장 잠재력은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웹툰의 글로벌화 현상을 대표하는 사례로 네이버의 자회사인 웹툰 엔터테인

먼트(WEBTOON Entertainment)의 성장을 들 수 있다.[1]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3 만화 산업백서』에 따르면, 네이버웹툰은 2014년 7월 영어 서비스 개시 이후 미국 플랫폼 시장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정착한 만화 플랫폼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캔버스(CANVAS)'라는 해외 창작자 발굴 시스템은 단순한 아마추어 작가 등용문을 넘어 현지의 문화적 정체성과 취향에 부합하는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을 목표로 한다.[2] 레이첼 스마이스(Rachel Smythe)의 「로어 올림푸스(Lore Olympus)」[3]는 이러한 현지화 전략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4] 높은 단행본 판매고를 기록하며 대중적 성공을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아이스너상 연속 수상 등을 통해 텍스트의 예술성을 인정받기도 했다.

이처럼 웹툰의 전 세계적 확산을 위해 '현지화'라는 과제가 강조되면서, 현지 창작자 발굴과 한국 웹툰의 번역과 수출이라는 이중적 과제가 중요하게 부상하였다. 대중문화 텍스트이자 플랫폼을 통해 시리즈로 연재되는 웹툰은 특히나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그 관심을 지속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때문에 단순한 언어적 전환을 넘어 현지의 역사와 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번역과 각색이 각별히 요구된다.[5] 이러한 특성은 웹툰 번역이 텍스트의 의미를 온전히 담아내는 문제뿐만

---

1 네이버웹툰은 나스닥 상장 이후 주목과 함께 부침을 겪고 있긴 하나, 최근 미국에서 개최된 박람회 뉴욕 코믹콘(NYCC)에 참여하는 등 저변 확대를 위한 시도를 통해 영향력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하고 있다. 「美 영향력 확대하는 네이버웹툰…'뉴욕 코믹콘'서도 존재감」, 『아이뉴스24』, 2024. 10. 20, https://www.inews24.com/view/1773753 (접속일: 2024. 10. 22)

2 네이버웹툰(WEBTOON)의 미국 플랫폼 시장의 점유율은 전체 이용자 중 70%가 활성화 이용자라는 점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하며, 2022년 2분기 기준 북미 월간 활성화 이용자 수(MAU)는 1,250만 명을 기록했다.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2023 만화 산업백서』, 한국콘텐츠진흥원, 2023, 158쪽. 이러한 현상에 기대어 이 글은 네이버웹툰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3 「로어 올림푸스(Lore Olympus)의 연재 기간은 다음과 같다. 2018. 3. 4- 2024. 6. 2 (WEBTOON), 2020. 8. 18- 2024. 8. 1(네이버웹툰)

4 작가 스스로도 캔버스에 「로어 올림푸스」 1화를 업로드한 자신의 행동이 인생을 바꾸었다고 말하기도 한다. 「후기」, 네이버웹툰, 2024. 9. 6

5 이 기사에서 번역 언어의 문화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번역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은 카카오엔터메인트의 경우로 다루어졌고, 네이버웹툰의 글로벌 전략은 정교한 번역의 중요성에 동의하는 동시에 각국의 새로운 창작자를 찾아 현지 독자 취향에 맞는 시리즈를 만드

아니라 현지 시장에서의 성공적 정착이라는 상업적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리라는 사실을 짐작하게 한다.

웹툰 번역이 산업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는 이와 같은 지점은 번역 연구의 관점과 경향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번역의 구체적 양상을 살펴보는 논의들은 주로 '더 나은' 번역을 위한 실천적 방향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왔으며, 어휘와 의미 차원에서의 정확성과 적절성을 평가하여 독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번역 전략을 탐색하는 데 주력해 왔다.[6] 이러한 연유에서인지 번역을 통한 문화적 의미의 재구성 과정에 주목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김진규의 연구는 장르 이해와 문화 정체성 문제를 중심으로 번역의 방향을 평가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이 논문은 중화풍 세계관에 기반한 '무협'과 변별되는 '무림' 서사라는 한국적 맥락에서 생산된 문화적 혼종성을 지닌 장르가 글로벌 플랫폼에서 정착하는 과정에 주목하면서,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번역 방식을 탐구한다.[7] 대중문화 텍스트이자

는 방식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루고 있다. 「[Feature] Korean webtoons expand globally with different strategies」, 『The Korea Herald』, 2022. 9. 5, https://www.koreaherald.com/view.php?ud=20220905000734(접속일: 2024. 10. 18)

6 공식 번역과 관련된 논의가 주로 텍스트의 변환 양상을 살펴보는 데 그치는 경향이 있다면, 번역의 문화적 의미를 살펴보는 연구는 팬 번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공식번역이 점점 활성화되고 있는 현재 맥락을 고려할 때, 공식 번역과 관련된 문화 변용의 의미를 살펴보는 논의가 필요하다. 팬 번역과 공식 번역을 함께 다루면서 문화 변용과 교류, 수용자의 반응 등을 살펴보는 연구 또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공식번역과 관련된 논의로는, 김수명·이지민, 「웹툰 『신의 탑』 그림텍스트 번역 연구」, 『통번역학연구』 제21권 1호, 통번역연구소, 2017, 1-25쪽; 김현우, 「K-콘텐츠에서 고유명사의 번역 전략: 웹툰 <살인자ㅇ난감>을 중심으로」, 『지식과 교양』 제15호,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2024, 357-375쪽; 김혜림, 「웹툰 한중 번역전략 분석: 『신과함께-저승편』을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제23권 2호, 통번역연구소, 2019, 49-70쪽, 등이 있다. 팬번역과 관련된 논의로는, 김순미, 「플랫폼상에서 이루어지는 웹툰 팬 번역의 특징과 가능성-네이버 웹툰(WEBTOON)과 토리코믹스(Torycomics)」, 『통역과 번역』 제24권 1호, 한국통역번역학회, 2022, 27-58쪽; 김혜림, 「플랫폼 기반 웹툰 중국어 팬 번역 고찰 네이버 WEBTOON TRANSLATE를 중심으로」, 『중국문학』 제120집, 한국중국어문학회, 2024, 415-437쪽; 조성은, 「웹툰 팬번역 양상 연구 - 『신의 탑』 팬덤의 정서적 특징을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제19권 3호, 통번역연구소, 2015, 239-263쪽, 등이 있다.

초국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웹툰이 장르적 문법을 바탕으로 생산과 수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번역 방식과 연관하여 살펴보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글은 번역과 장르의 관계를 살펴보는 선행 연구의 문제의식을 이어가되, '더 나은' 번역을 제안하기보다는 번역 과정에서 나타나는 대체, 삭제, 창작 등의 양상이 내포하는 문화적 의미를 장르 이해와 독자 수용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번역은 이국화와 자국화의 적절한 '사이'에서 작동하며, 단순한 언어적 전환이 아닌 문화적 협상과 중재의 복합적 과정이다.[8] 번역 과정에는 두 문화 간의 비대칭적 권력관계가 작용하며, 이는 원텍스트와 대등한 또 다른 텍스트를 단순히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다시 쓰기'라는 복잡한 과정으로 나타난다. 즉, 번역은 문화적 타자를 수용, 협상, 혹은 배제하는 정치적 행위라 할 수 있다.[9] 이러한 맥락에서 번역에 대한 평가는 자구적 충실성이나 의미 전달의 정확성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문화적 소통과 협상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로어 올림푸스」의 한국어 번역 사례는 이러한 번역과정의 쟁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이 텍스트는 한국어로 번역 연재되면서 '글로벌 No.1 인기작'이라는 수식어로 소개되었으나, 국내에서는 기대만큼의 대중적 반향을 얻지 못했다. 독자 반응에서 작품성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은 없었지만, 조회수나 대중적 인기 면에서 눈에 띄는 차이를 보였다.[10] 그 원인 중 하나로 젠더 정체성과 섹슈얼리티에 관한 수용 감각의 차이와 그에 따른 번역 과정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11] 원텍스트가 보여준 개방적 관점이 보수적으로 각

---

7 김진규, 「무림 웹툰의 문화적 정체성과 영어 번역 - 한글전용체제에서의 무림 웹툰 감상과 번역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제46호, 한국근대문학회, 2022, 67-106쪽.

8 매슈 레이놀즈, 이재민 역, 『번역』, 교유서가, 2017, 96-104쪽

9 로만 알바레스, M. 카르멘-아프리카 비달 외, 윤일환 역, 『번역, 권력, 전복』, 동인, 2007, 16쪽.

10 물론, 국내에서 주목이 덜 되었다는 사실은 플랫폼의 규모나 독자층의 성향 등을 고려하여 다각도로 평가해야 하는 내용이다. 현재 한국어 웹툰 플랫폼에서 대중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텍스트 대다수는 사건 중심의 빠른 서사 전개가 이루어진다. 그런 점에서 「로어 올림푸스」의 느린 서사 전개나 독특한 그림체 등은 최근 한국 웹툰의 주된 경향과 차이를 보이며, 이는 이 웹툰의 인기와 조회수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색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역, 오역, 삭제 등은 번역 과정에서 나타난 문화적 검열 또는 문화적 중재가 잘 이루어지지 못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매끄럽지 못한 번역이라는 독자들의 지적은, 원텍스트의 문화를 유지하면서도 독자의 수용 지평에 부합하도록 조정하려는 노력이 부족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번역 과정에서 원텍스트의 의미를 존중함과 동시에 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히 다듬는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한다.[12]

한편, 이 사례는 웹툰 번역이 필연적으로 '문화적 혼종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드러낸다.[13] 웹툰 번역에서 나타나는 혼종성은 세계 시장에서 다양

---

11 연재 초기부터 신체를 부각하는 그림 스타일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선정성 또는 한국과 미국의 정서 차이에 대한 독자 반응을 찾아볼 수 있다. 1-4화까지의 댓글을 보면, 특유의 그림체인가 성적대상화인가에 대한 의견을 찾아볼 수 있고 육체미를 강조하는 미국 문화를 존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확인된다. 11화에서는 페르세포네의 신체가 드러나는 장면 일부가 삭제되기도 하는데, 이는 섹슈얼리티에 대한 양국의 수용 차이가 개입된 변형으로 보인다. 14화에서는 한국판 연재에 따라 검열로 삭제되는 장면이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담긴 내용이 베스트 댓글로 달리기도 한다("근데 진짜 한국판 연재하면서 검열로 삭제되는 장면 있는데 앞으로 그런 장면 많아질텐데 그거 어떻게 연재될지 궁금하네 성폭행, 데이트 폭력, 살인(?) 등등 예민한 주제 많이 나오는데", 2020. 09. 20. 11:28:51)
19화는 번역 과정에서의 검열이 크게 나타난 회차로, 베스트 댓글에는 한국판 번역과 미국 원텍스트를 비교하는 글을 찾아볼 수 있다. 연령 등급을 바꾸어서 그대로 번역하길 바란다는 견해가 베스트 댓글이 되었는데, 처음부터 순화되어 원텍스트에 비해 묘사가 축소되었다고 지적하고, 번역의 말투가 너무 직역이라 차후 전개될 감정묘사 장면에 대한 우려도 제기한다. 매끄럽지 않은 번역이 문제로 지적된다는 내용은 5화의 한 댓글에서도 확인된다. 원텍스트를 본 독자가 직역한 느낌이 아쉽다거나 미국 말투를 그대로 번역해서 어색하다고 언급한다. 이러한 번역의 문제는 인물 간 대화의 맥락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거나 독서의 흐름이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12 이와 관련하여 웹툰「틴맘」의 번역도 한국에서 무리하게 현지화를 시도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솜쓰리 니랏차다,「웹툰『틴맘』의 태국어-한국어 번안 번역 연구」, 한국외국어대 석사학위논문, 2024, 41-105쪽 참조.

13 호미 바바는 식민지 문화와 제국 문화가 뒤섞인 제3의 혼종적인 문화공간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문화번역'이라는 개념을 제시한 바 있다. 혼종적인 문화 형성에는 식민자의 권력과 정치, 언어 등을 문제화하는 문화적 저항의 의미가 담겨 있다. 태해숙,「문화연구의 방법론으로서 '젠더번역'에 대한 탐색」,『젠더와 문화』제6권 1호, 여성학연구소, 2013, 84-91쪽. 이 글은 바바의 '문화적 혼종성' 개념을 참고하되 번역 과정에서 개입되는 권력의 문제와 저항의 의미와는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한다.

한 독자층을 확보하기 위해 문화적 코드를 유연하게 변형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것으로, 이는 현지화된 자본 전략의 효과이자 문화 소비의 유동성을 보여준다. 또한, 번역 과정에서 생겨나는 새로운 문화적 정체성은 두 문화 사이의 차이에서 진동하는 번역 주체의 세계관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자본주의적 산업 구조에서 글로벌 시장의 문화 상품으로 정착하려는 목적이 우선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웹툰의 글로벌화에서 번역은 핵심 요소이지만, 여전히 웹툰 번역을 둘러싼 다양한 사안들이 추가적으로 검토되고 논의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글로벌 웹툰 시대 번역에 대한 조익상의 논의는 주목할 만하다. 그는 번역가 양성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번역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전략과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플랫폼과 제작사와 같은 번역 주체의 변화를 촉구한다. 번역가의 주체성을 가시화하고, 번역 및 감수 과정에 현지어 전문 인력을 적극적으로 고용하며, 강한 현지화를 지양하면서 한국인과 현지 번역가가 상호 보완적으로 협력하는 팀 운영 방식 등을 제안한다.[14]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이 글은 웹툰 번역과 관련된 세 가지 요인에 좀 더 주목하고자 한다. 첫째, 웹툰은 그림텍스트와 언어텍스트가 결합하여 하나의 통합된 매체로서 복합적인 특성을 지닌다. 두 요소는 상호작용하며 의미를 구성하는데, 이러한 특성 때문에 번역 과정에서 그림텍스트와 언어텍스트의 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웹툰에서 양자는 개별적으로 독립된 요소가 아니라,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며 의미를 공동으로 구성한다. 실제 번역 과정에서도 그림을 통해 전달되는 의미를 언어로 풀어내거나, 그림으로 충분히 전달되는 내용을 언어적으로 생략하는 등의 전략이 활용되기도 한다.[15] 요컨대, 번역 행위는 언어와 그림 이미지라는 두 요소의 얽힘 속에서 동시적으로 생성되는 의미를 새롭게 형성하는 과정이다.

둘째, 웹툰 번역은 집단적이고 다층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여러 번역 행위자들이 참여하여 협력하는 과정에서, 번역의 각 참여자가 기여하

14 조익상, 「글로벌 웹툰 시대, 번역을 위한 제언」, 『만화규장각』, 2021. 8. 19, https://www.kmas.or.kr/webzine/cover/28383 (접속일: 2024. 12. 10)

15 김수명·이지민, 앞의 글, 11-12쪽.

는 작업들은 상호작용을 통해 하나의 번역물로서 의미를 형성하는 과정으로 나타난다. 특히, 이 글의 주된 분석 텍스트가 네이버웹툰에서 연재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2012년부터 영문, 중문, 일문 전담 번역이 이루어진 YLAB의 사례는 주목할 만하다. YLAB은 "자연스럽고 현장감 넘치는 표현"의 번역을 위해, 작품 회의, 원어민에 의한 번역, 한국인 번역전문가들의 1차 검수, 번역 전문 원어민들의 2차 검수 과정을 거친다. 다양한 행위자가 번역에 관여하여, 각자의 작업이 서로 얽히며 새로운 문화적 의미를 창출한다.[16] 이는 단순한 언어적 전환이 아니라, 여러 행위자가 함께 의미를 구성해 나가는 다층적 문화 소통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개별 번역가의 정체성은 비가시화되는 경우가 많으며,[17] 텍스트와 이

16 YLAB 홈페이지 '번역사업'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언니, 이번 생엔 내가 왕비야」의 번역을 YLAB이 담당했는지 직접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라인웹툰(네이버웹툰 해외 플랫폼의 과거 명칭)의 번역을 현재까지 맡고 있다고 명시된 점을 고려할 때, YLAB이 해당 번역을 담당했을 가능성은 적지 않다고 판단된다. http://www.ylabcomics.com/sub/sub_04_03.php (접속일: 2024. 12. 13) 한편, 모든 웹툰이 이와 같은 번역 과정을 거치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YLAB의 사례는 주목할 만하다. YLAB는 웹툰 번역 사업 초기부터 참여해온 주요 업체로, 2022년 기준 다수의 인기작을 포함하여 1,000개 이상의 작품을 번역했다는 점에서 웹툰 번역의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다. 「As webtoons go global, translations prove crucial」, 『Korea Joongang Daily』, 2022. 5. 10, https://koreajoongangdaily.joins.com/2022/05/08/business/industry/Korea-YLAB-YLAB-Earth/20220508140008792.html (접속일: 2024. 10. 18)
이러한 다층적 번역 과정은 일본 웹툰 번역팀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번역의 방향성과 설정을 사전에 검토하는 내부 자료 제작을 거친 후, 번역 과정은 초벌 번역, 정밀 번역, 최종 검토의 단계로 이어지며, 각 단계에서 다양한 번역 주체들이 참여한다. 이 과정에서 번역이 외주로 진행될 경우 번역가가 중간에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며, 정밀 번역 과정에서는 번역가의 취향이나 관점, 역량이 번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웹툰은 그림텍스트와 언어텍스트가 공존하는 특성상, 텍스트가 전달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의미가 크게 훼손되지 않는다면 원텍스트에 대한 과감한 의역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만화 번역은 원텍스트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는 한에서 '더 재미있는 방향'을 추구하며, 이 과정에서 번역과 번안의 경계를 넘나들 수 있다. 예를 들어, 가독성을 높이거나 감정선을 섬세하게 표현하기 위한 변형, 문화적 친밀감을 높이기 위한 설정 추가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코미코(NHN Comico)에서 번역 관련 업무를 수행한 관계자와의 대화를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17 개별 번역가의 정체성이 비가시화되는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번

미지, 문화적 맥락, 플랫폼 자본주의의 논리가 얽힌 상호작용 속에서 번역 행위 자체가 더욱 강조된다.

셋째, 이러한 집단적 번역 과정에서 원본과 번역본 간의 관계는 국가 간 권력 비대칭성 등의 전통적인 번역 이론의 틀로는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웹툰 번역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혼종성은 특정 국가의 문화적 정체성에 고정되지 않고, 장르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문화 요소가 상호작용하며 새로운 문화적 의미와 정체성을 형성한다. 이러한 혼종성은 특히 글로벌 문화 콘텐츠로 기획된 웹툰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이다.[18] 웹툰 번역에서 독자의 관심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번역된 텍스트의 조합은 독자에게 새로운 현실과 의미를 경험하게 하는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이러한 웹툰 번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 글에서는 캐런 버라드(Karen Barad)의 행위적 실재론(Agential Realism)'을 활용하여, 웹툰 번역이 의미를 생성하는 과정의 역동성을 이해하는 시론적 논의를 시도하고자 한다.[19] 버라드에 따르면, 의미란 물질성과 담론적 실천이 내부적으로 얽히면서 형성되는 역동적

역의 주체를 드러내지 않는 경우와 번역팀으로 등재되는 경우를 수 있다. 조익상에 따르면, 번역가의 이름, 필명, 번역팀명을 크레딧에 등재하는 일은 번역 수행의 지속성과 완성도 차원, 플랫폼의 지속성과 품격 등에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는 북미 타파스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한 대부분의 플랫폼에서 번역자의 이름을 찾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며, 이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파한다. 조익상, 앞의 글.

18 네이버웹툰이 외국어 서비스를 실시하는 초창기부터 한국 콘텐츠의 수출이 아닌 다양한 문화권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글로벌 플랫폼을 지향한다는 점은 이러한 특성을 잘 보여준다. 「Webtoons find audiences abroad: Services that translate popular Korean web comics have hooked international readers」, 『Korea Joongang Daily』, 2018. 12. 12, https://koreajoongangdaily.joins.com/2018/11/12/etc/Webtoons-find-audiences-abroad-Services-that-translate-popular-Korean-web-comics-have-hooked-international-readers/3055549.html (접속일: 2024. 10. 18)

19 웹툰 번역을 물질을 새롭게 이해하는 최근의 신유물론적 논의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 아이디어는 한국여성문학학회 2024년 하반기 학술대회에서의 기조발표를 듣고서 떠오른 것이다. 지면을 빌려 박선주 선생님께 감사함을 전한다. 박선주, 「기계 안의 유령: 기술, 번역, 젠더」, 『한국여성문학학회 2024년 하반기 학술대회 '번역과 젠더' 자료집』, 2023, 15-19쪽 참조. 또한, 이 글에서는 웹툰 번역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당 발표문에서는 다루지 않은 캐런 버라드의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음을 밝혀둔다.

과정으로, 차별적 이해 가능성 속에서의 지속적 수행을 통해 나타난다. 이때 물질은 단순히 고정된 사물이 아니라, 내부 작용(intra-action)을 통해 생성과정에 있는 실체이자 물질화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행위자로서 작용한다.[20] 이러한 개념에 비추어 본다면, 웹툰 번역은 단순한 언어 전환이 아니라, 텍스트와 이미지, 그리고 다양한 번역 행위자들이 상호작용하며 공동으로 의미를 생성하는 수행적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21]

이 글은 웹툰 번역의 특수성을 염두에 두면서, 웹툰의 글로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이'가 지닌 장르적, 문화적 의미를 독자 수용의 맥락을 고려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번역을 단순한 언어적 전환이 아닌 문화적 의미가 재구성되는 창조적 과정으로 이해하고, 웹툰 번역의 특수한 맥락을 좀 더 세밀히 살펴보려는 시도이다. 주요 분석 대상은 노블코믹스에 속하는 로맨스 판타지(Romance Fantasy) 장르의 웹툰이다. 웹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노블코믹스는 글로벌 시장 진출에 결정적 역할을 했으며,[22] 그중에서도 로맨스 판타지는 2010년대 이후 웹툰의 해외시장 성장을 주도하는 핵심 장르로 자리매김했다.[23] 이 장르는 한국 여성 독자들의 욕망과 시대 인식을 반영하며 변화하는 유동적인 장으로서도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북미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는 네이버웹툰 플랫폼의 로맨스 판타지 장르를 중심으로, 젠더 재현의 번역 양상을 분석하고, 번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화적 차이의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

20 Karen Barad, "Posthumanist Performativity: Toward an Understanding of How Matter Comes to Matter." Signs vol. 28, no. 3, Spring 2003, p.811-824. 버라드의 논의에 대한 국내논문으로는 다음을 참조. 이지선, 「캐런 버라드의 행위적 실재주의에서 물질과 실재」, 『한국여성철학』 제38권, 한국여성철학회, 2022, 117-152쪽.

21 이 글은 캐런 버라드의 논의를 통해 웹툰 번역을 설명하지만, 웹툰 번역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려는 논의가 아님을 밝혀두고자 한다. 웹툰 번역의 공동 번역 성격은 상업적 목적과 긴밀히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매주 제공되어야 하는 번역의 속도 문제, 플랫폼 차원의 번역 방침과 일관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번역 문제는 문화 상품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목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글의 관심은 웹툰 번역 배후에 존재하는 의도와 의미를 살피거나 적절한 번역의 방향에 대해 모색하는 데 있지 않으며, 번역 행위의 역동성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효과를 분석하는 데 있다.

22 서은영, 『웹툰, 시대를 읽다』, 역락, 2024, 123-128쪽.

23 위의 책, 174-179쪽.

2 로맨스 판타지 장르의 경계와 수용의 유동성

구체적인 번역 양상을 검토하기에 앞서, 로맨스 판타지 장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번역과 장르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로맨스 판타지는 낭만적 사랑을 중시하는 로맨스와 모험과 성장을 강조하는 판타지의 특성이 결합된 장르로, 통상 '로판'이라는 약칭으로 불린다. 이 장르는 여성 주인공이 사랑의 성취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주로 다룬다.

로맨스 판타지 장르는 판타지 중심의 웹소설 시장에서 여성 독자들의 수요를 반영하는 새로운 장르물이 요구되는 과정에서 출현하였다. 2009년을 기점으로 하나의 작품군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으며,[24] 2014년 6월 웹소설 플랫폼에서 '로맨스 판타지'라는 장르명을 인지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었다. 2015년 7월 조아라 플랫폼에서 독립된 카테고리로 설정되면서 장르적 정체성이 공고해졌다.[25] 이러한 과정 속에서 로맨스 판타지는 여성 독자층을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웹소설 장르로 자리매김하였다. 특히 2010년 중반 한국 사회의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에는 관습적 젠더 재현에서 벗어난 인물형상화와 서사구조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 장르는 기존 로맨스와 차별화된 여성 인물의 주체성을 보여주면서도, 장르의 문법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로맨스' 요소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가부장제적 욕망을 재생산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26] 최근 웹소설 시장의 확대와 함께 인기 있는 클리셰의 반복, 유사한 설정 및 패턴의 양산으로 인해 보수적 성격이 강화되는 추세이나, 동시에 이러한 관습적 흐름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시도의 텍스트들도 등장하고 있다.

---

24 텍스트릿, 『비주류 선언』, 요다, 2019, 224쪽.

25 위의 책, 234-238쪽; 안상원, 「한국 웹소설 '로맨스판타지' 장르의 서사적 특성 연구」, 『인문콘텐츠』 제55호, 인문콘텐츠학회, 2019, 221쪽.

26 비판의 강도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지만, 많은 연구들이 가부장제적 욕망과 공모한다는 비판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류수연, 「여성인물의 커리어포부와 웹 로맨스 서사의 변화- 로맨스판타지의 '악녀' 주인공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과예술』 제39집, 한국문학과예술연구소, 2021, 35-58쪽; 서은영, 「로맨스판타지 웹툰의 부상과 재현: #서로판, #영애물, #집착남물을 중심으로」, 『애니메이션연구』 제55호, 한국애니메이션학회, 2020, 93-11쪽.

이 장르의 대중적 영향력은 노블코믹스의 성공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그러나 웹소설과 웹툰이 매체 차이로 인해 이야기의 성격이 달라지는 지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각색자에 의해 사건과 결말 등이 크게 변화한 경우를 차치하더라도, 그림이라는 시각적 텍스트가 중요한 웹툰의 특성상 장면 연출을 통해 극적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다.[27] 또한 대체로 핵심사건 위주로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인물의 입체성보다 매력적인 외양과 성격을 부각하는 스토리텔링 전략을 구사한다. 이러한 매체적 특성은 원작 웹소설과 같으면서도 변별되는 로맨스 판타지의 독특한 분위기를 형성한다.

로맨스 판타지 장르의 주요 서사적 특징 중 하나는 '이세계(異世界)'로의 이동이다. 주인공은 일상 세계를 벗어나 다른 문화, 역사, 생활방식을 지닌 세계로 진입하는데, 이는 판타지 장르에서 자주 사용되는 회귀, 빙의, 환생 모티프와 긴밀히 연결된다. 특히, 이 장르에서 구현되는 이세계는 대개 서구 중세의 신분제 사회를 배경으로 설정되며, 여성 주인공은 주로 황녀나 공녀와 같은 상위 계층으로 그려진다. 이러한 설정은 여성 인물이 역량을 발휘하고 사회적 지위를 상승시키며, 젠더 권력 관계를 전복할 수 있는 서사적 토대로 기능한다.[28]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계급적 불평등의 문제를 비가시화거나 묵과하는 한계를 드러내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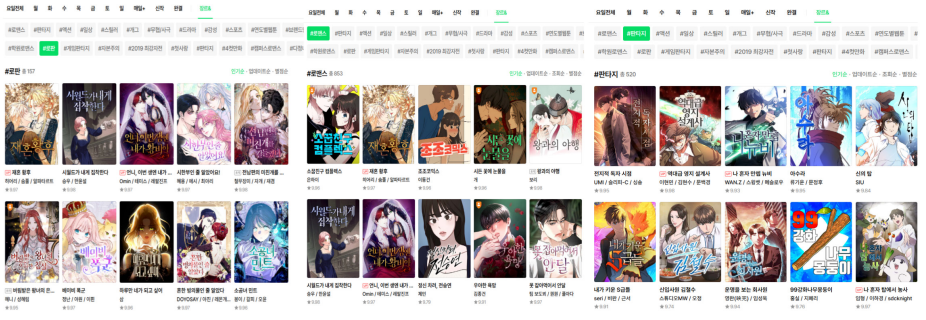
이 글은 이러한 장르적 특성을 염두에 두고, 서양풍 로맨스 판타지 장르의 번역이 지닌 문화적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장르에 속한 텍스트는 서구의 중세

---

27 이 글의 중심 분석 대상인 「언니, 이번 생엔 내가 왕비야」를 통해 예를 들어보겠다. 웹툰 11화(한국어)에서 주인공 아리아드네는 이단으로 지목된 사도의 논리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대성황당의 문을 '쾅' 열어젖히고, 큰 목소리토 호통을 치며, 그 사도의 멱살을 잡는 등 격렬한 감정과 행동을 보여준다. 반면 원작 웹소설 19-20화의 같은 장면에서는 위엄 있는 목소리로 주목을 끌며, 논리적 정합성을 갖춘 논박을 펼친다. 이단 심문관을 향해 삿대질을 하거나 큰 성량으로 소리치는 모습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이러한 차이에 대해 웹툰 독자들은 각색 과정에서 연출이 과도해졌고, 감정 표현이 지나치게 격해졌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역사적 고증에 바탕을 둔 원작의 분위기와 흐름이 훼손되었다고도 지적한다(11화 댓글 내용 참고). 웹툰과 웹소설의 표현 방식의 차이와 각색 과정에서의 의미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28 김수아·고윤경, 「웹소설에 재현된 낭만적 사랑: 웹소설 수용자 인식을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문화』 39권 1호,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24, 215쪽.

시공간을 한국의 문화적 맥락에서 재해석하여 창작된 후, 다시 영어 번역을 통해 서구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문화적 관습에 맞추어 조정된다. 이러한 텍스트의 존재 양식은 현지화 과정에서 서구의 문화적 요소가 강화될 때, 이를 단지 문화적 권력과 위계의 관점에서만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게다가 웹툰의 매체적 특성은 이러한 문화적 번역의 의미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그림텍스트를 통해 서구의 문화적 요소나 시대적 배경이 시각적으로 구현되는 한편, 언어 텍스트에는 한국의 언어 관습과 사회적 인식이 다양한 형태로 개입된다.[29] 이러한 구조는 인물 설정, 대사에 내포된 문화적 인식 체계와 관습적 언어 사용, 각국의 장르 이해 방식, 그리고 독자층의 문화적 기대지평 등에서 차이를 만들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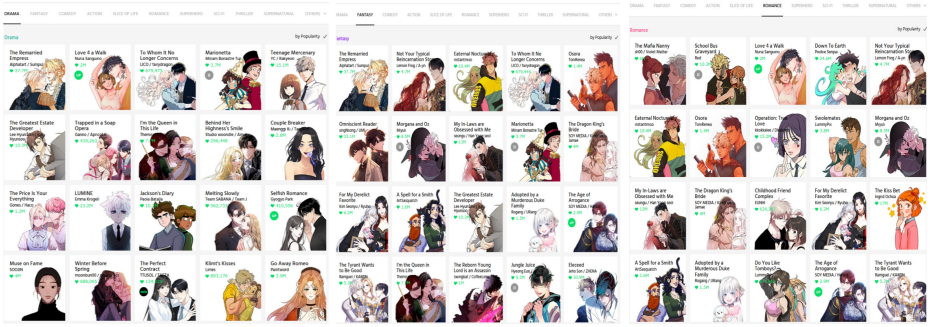


[그림 1] 네이버웹툰에서 '로판', '로맨스', '판타지' 장르 연재작을 인기순으로 정리 (2024.10.25)

우선, 네이버웹툰과 영어 서비스 페이지의 장르 분류 체계에서 발견되는 차이를 살펴보겠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 국내에서는 로맨스, 판타지, 로판(로맨스 판타지)이 개별 장르로 분류되며, 「재혼황후」, 「시월드가 내게 집착한다」, 「언니, 이번 생엔 내가 왕비야」 등의 텍스트가 '로판'과 '로맨스' 두 장르에 모두 속하

29 「언니, 이번 생엔 내가 왕비야」의 예를 들면, 웹소설 6화에 있는 인물의 대사를 그대로 옮긴 웹툰 3화의 "기체후 일향 만강하시옵니까. 불초 자식이 오랜만에 추기경 예하를 뵈어 기쁘기 한량없습니다."는 서양 중세 배경이라는 맥락에는 어울리지 않는 한국적 전통의 경어체와 고전적 표현 형식으로 보인다. 이는 영어로는 다음과 같이 번역되었다. "Greetings, your eminence. I pray I find you in good health. I'm delighted to see you again after a long absence."

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이러한 텍스트의 상당수는 '판타지' 장르로는 분류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30] 그러나 그림2에서 나타나듯, 영어서비스에서는 '로판'이라는 독립된 장르 분류가 존재하지 않으며,[31] 국내에서 '로판'으로 분류된 텍스트 대부분이 '판타지' 장르로 분류되고, 일부는 '로맨스' 범주에서 제외되는 현상이 관찰된다.[32] 이는 한국의 '로판' 텍스트가 번역 과정에서 기존 장르 체계 내에서 재분류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그림 2] Webtoon에서 '드라마', '판타지', '로맨스' 장르 연재작을 인기순으로 정리 (2024.10.25)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장르 분류의 차이가 독자 수용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이는 「I'm the Queen in This Life('언니, 이번 생엔 내가 왕비

30 물론 이는 네이버웹툰의 장르 분류 체계가 지닌 느슨함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글은 이러한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플랫폼의 장르 분류가 독자들의 텍스트 해석과 수용 방식을 상당 부분 규정한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31 웹툰(WEBTOON) 영어서비스에서의 장르 구분은 다음과 같다. Drama, Fantasy, Comedy, Action, Slice of Life, Romance, Superhero, Sci-fi, Thriller, Supernatural, Others(Mystery, Sports, Historical, Heartwarming, Horror, Informative). 반면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타파스(Tapas)를 통해 웹툰 서비스를 진행하는데, 이 사이트에서는 '로맨스 판타지'라는 장르명이 나타난다. 이는 한국에서 카카오페이지의 주력 장르가 '로맨스 판타지'라는 점과 북미 시장에서도 이 장르를 강조하여 독자층을 확장하려는 전략을 보여주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타파스에서 연재되는 텍스트의 번역과 독자 수용의 문제는 추후 과제로 남겨둔다.

32 예를 들어, 「재혼황후」, 「시월드가 내게 집착한다」, 「언니, 이번 생엔 내가 왕비야」는 '판타지'로 분류되는데, 이중 「재혼황후」와 「언니, 이번 생엔 내가 왕비야」는 '로맨스'로 분류

야'의 번역)」 99화의 댓글에서 나타난 독자 의견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 독자는 회귀한 주인공의 시도가 반복적으로 좌절되는 서사에 대해, '비극'이 아닌 '로맨스'를 기대했던 독자로서 불만을 제기한다.[33] 이에 대한 24개의 답글에서는 장르 인식의 차이에 따른 다양한 반응이 나타난다. 일부 독자들은 로맨스 장르에서 기대되는 낙관적 결말과 감정적 만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 동의하는 반면, 다른 독자들은 이 텍스트가 '판타지' 장르로 분류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로맨스적 요소를 기대하는 독자의 욕망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 다시 말해, 이 서사는 로맨스가 주요 초점이 아니며, 로맨스 장르에서 기대되는 사랑스러운 분위기나 해피엔딩을 충족하지 않는 텍스트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34]

되지 않는다.

33 Ussop the Liar(Jun 24, 2024) "Man, I'm reallllly beginning to hate this fate. She's done so much right and kept with the karmic justice, in this whole endeavor she only helped someone survive assassination and punish one of the people who perpetrated this conflict. But again, it seems like fate is gonna kill the queen anyways and undo any good Ariadne feels she's done for this world. Honestly, if this keeps up and I'm right I might drop this series. I came to read a romance not a tragedy." (밑줄: 인용자)

34 Surruh(Jun 24, 2024) "i get it but technically the genre of this comic is fantasy not a romance. romance is just a bonus in this story. anyway not gonna lie, the death of the younger sister has me the most UPSET out of everything."

Cookie Monster 3.0(Aug 20, 2024) "Womp womp my guy. Sure Arabella's death is pretty sad indeed, but if you're still holding a grudge over this, even though the story is not about her, then you were probably weren't here for the story anyways. It's a fantasy not a romance."

winxology101(Sep 16, 2024) "This isn't even labeled romance, that's not the main focus. You came to read romance··· on a story that doesn't focus on it. This story is plot heavy, idk what you expected"

LuciPlays(Sep 17, 2024) "It's not technically a romance, it's a fantasy. Romance would only be a sub plot in the story as it's not the main focus nor is it supposed to be. If I were you I'd just stop reading now since you wanted a lovey dovey romance with a happy ending." (밑줄: 인용자)

35 익명의 심사위원께서 영어 플랫폼에서 판타지 장르 중 여성 주인공의 모험을 소비하는 주된 독자층의 젠더를 분석할 필요성을 지적해주셨다. 필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네이버 플랫폼(한국어)은 독자의 성별에 따른 인기 텍스트 분류를 제공하지만, 영어서비스 플랫폼에

전통적으로 로맨스 장르는 인물 간의 감정적 긴장과 관계 발전, 그리고 낙관적 결말을 통한 정서적 만족을 제공하는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서사 구조를 특징으로 한다.[36] '판타지' 장르로 이해하는 독자들은 인물 간의 정서적 관계보다 사건 전개, 세계관, 인물의 목표와 갈등 등 서사적 요소에 더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 판타지는 현실 너머의 초현실적 세계에서 펼쳐지는 여행과 모험을 경험하는 인물의 여정을 중심으로 전개된다.[37] 이러한 서사에서 인물의 성장과 도전은 종종 영웅적 여정과 유사한 구조를 보이며, 세계관과 사건 전개의 복잡성 속에서 그 의미가 강조된다. 독자들에게 긴장감과 예측 불가능한 서사적 경험을 제공하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비극적 결말이나 인물의 고난을 통해 주제 의식을 심화시키는 경향도 나타난다.

이 글은 이러한 독자 반응과 장르 이해를 번역 문제와 연결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분석 대상으로 「언니, 이번 생엔 내가 왕비야」[38]와 영역본 「I'm

---

서는 이러한 분류 기준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텍스트의 독자층을 세대와 젠더 등으로 세밀히 분석할 필요성이 있으나, 자료 접근의 한계로 인해 이는 추후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다만, 영어 번역본의 댓글을 보면 독자들이 1화부터 서사 속에서 나타나는 여성혐오를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등 이 문제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베스트 댓글과 달리, 영어서비스에서는 상위 세 개의 댓글이 'TOP'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그중 두 번째에 해당하는 댓글이 그와 같은 내용을 언급하고("The amount of idiotic and misogynistic energy I'm getting from cesare is horrible", that weird alien, Nov 14, 2022), 여기에 50개의 답글이 달린다. 한편, 한국의 베스트 댓글 15개에는 인물의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비판의 강도 차원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두 플랫폼의 규모 및 댓글 수 차이 등으로 인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독자 반응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독자층의 젠더 편향성과는 무관하게 번역본에서 나타나는 완화된 표현은 차별을 무화하려는 의도라기보다는 문화적 맥락의 차이를 반영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36 이주라·진산, 『로맨스』, 북바이북, 2015, 14-21쪽.

37 이융희, 「한국 판타지 소설의 역사와 의미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26-27쪽.

38 이 웹툰은 2020년 네이버 지상최대공모전 로맨스파탄지 부문 최우수상 수상작인 동명의 웹소설을 원작으로 한다(글: 레팔진프). 네이버웹소설에서 2020년 12월 6일부터 연재가 시작되었으며, 2024년 11월 14일 기준 664화(네이버시리즈, 2024. 11. 14)까지 진행되었다. 네이버웹툰 플랫폼에서는 2022년 8월 11일부터 연재가 시작되었고, 2024년 11월

the Queen in This Life」[39]를 다루고자 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 기인한다. 우선 이 텍스트는 한국에서 전형적인 로맨스 판타지로 분류되는 텍스트가 영미권에서는 판타지 장르로 수용되는 사례에 속한다.[40] 영어 서비스에서 '판타

14일 기준 118화(2024. 11. 14, 무료 연재분 기준)까지 진행되었다(그림: 테미스, 각색: Omin). 이 웹툰은 영어, 스페인어, 독일어, 프랑스어, 일본어, 태국어, 중국어 간체/정체, 인도네시아어로 번역되어 소개되고 있다.

39 2022년 11월 14일부터 연재가 시작되었고, 2024년 11월 14일 기준 107화(2024. 11. 11, 무료 연재분 기준)까지 진행되었다. 한국어판과 같이 그림, 각색, 원작자 정보만 나오며, 번역자에 대한 정보는 밝히고 있지 않다. 한국어판과의 차이는 다음과 같은 원작자의 말이 실려 있다는 점이다. "A novel I wrote in South Korea using Hangul is now a web-comic being translated for readers all over the world. I'm so glad. I aim to write about something universal: a story of people and their relationship with others. I wouldn't ask for more if you feel immersed in the story while reading." 원작자(레팔진프)는 이 이야기가 "보편적인 무언가(something universal)"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다.

40 「I'm the Queen in This Life」와 유사한 형태의 장르 재분류 사례로, 「재혼황후」/「The Remarried Empress」도 언급될 수 있다. 그러나 「재혼황후」는 역사적 고증보다는 서양풍의 환상적 시공간을 배경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 글의 주된 문제의식에 완전히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번역 양상에서도 「I'm the Queen in This Life」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물론 여성 인물의 감정과 갈등을 좀 더 섬세하게 전달하면서 독자의 이해와 공감을 높이는 시도는 나타난다. 예를 들어, 43화에서 "남편인 황제는 어쩌지 못하면서 가엾은 정부에게만 화풀이하는 비겁한 악녀가 되어버린다."라는 대사는 "Then I become a cowardly, jealous woman who takes her anger out on the poor mistress while not daring to say anything to the emperor."로 번역된다. 여기서 '비겁한 악녀'가 '비겁하고 질투심 많은 여자'로 번역되면서 '악녀'라는 고정적 표상에 담긴 의미보다는 인물의 감정적 갈등이 부각된다. 이 밖에도 전반적으로 인물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춘 번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인공 나비에가 겪는 불안과 비통함 같은 감정은, 감정을 통제하고 우아하고 지적인 황후로서의 역할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는 인물 특성상 감정의 진폭이 크게 드러나기보다는 미세하게 표현된다. 대체로 원 텍스트에서 드러나는 황후로서의 화법을 적절히 옮기는 방식으로 번역되고 있다. 반면, 「I'm the Queen in This Life」에서도 인물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번역의 주요 방침 중 하나로 보이지만, 이 텍스트는 말투나 언어 사용을 통해 인물의 성격을 설명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덜 두드러진다. 그러한 점에서 단어와 문장이 좀 더 과감하게 변화된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이 텍스트는 인물의 강렬한 감정과 극적인 사건 전개가 독자의 반응을 고양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서사적 분위기와 독자의 기대를 고려하여 번역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고에서는 「I'm the Queen

지’ 장르로 분류됨으로써 로맨스에 대한 기대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이는 로맨스 중심의 해피엔딩이라는 장르적 제약에서 벗어나는 독자의 기대지평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 텍스트는 다수의 로맨스 판타지 텍스트들과 달리 독자적인 허구 세계가 아닌, 실제 중세 유럽을 모티프로 한 시공간적 배경을 채택하고 있다. 역사적 고증을 바탕으로 중세 유럽과 유사한 재현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41] 번역 과정에서 서구의 문화적 관습이 개입할 여지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판단된다.

---

in This Life」를 중점적인 분석 대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으로, 이 텍스트가 로맨스 판타지 장르를 대표하거나 서사적으로 완결성을 갖춘 텍스트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언급해 둔다. 또한, 서사적 완성도나 이야기 전달 방식과 관련된 평가 또한 이 글의 주된 관심사가 아님을 밝혀 둔다.

한편, 「The Remarried Empress」의 또 다른 번역상의 특징으로, 라스타라는 인물이 스스로를 이름으로 칭하며 말하는 특유의 화법이 전부 ‘I’로 번역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하인리가 라스타의 말투를 따라하면서 “하인리한테 화내지 말아요.”(126화)라고 하는 대목이 “Please don’t be mad at me”로 바뀌고 있음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라스타가 자신의 이름을 주어로 사용하는 화법은 인물의 미숙성과 자기중심적 경향을 드러내어 독자에게 부정적 인상을 강화하는 역할을 했지만, 영어 표현에서 자신의 이름을 주어로 사용하는 화법이 일반적이지 않아 독자가 부자연스럽게 느낄 가능성이 커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작화의 변화이다. 1화와 80화에 공통으로 나오는 이혼 장면이 그 예로, 현재 대조한 바로는 영어판에서 인물의 분노한 모습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이는 번역 과정에서의 개입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데, 작화의 수정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영어판의 80화에는 1화 당시의 그림과 변화된 그림이 함께 존재하는 반면, 한글판에서는 1화의 그림이 재사용되었다는 데 대한 불만의 댓글과, 시간이 지나 새로운 그림으로 대체되었다는 댓글을 찾아볼 수 있다. 영어판 댓글에서도, 한국판에서 그림이 다시 그려지지 않아 독자들의 불만이 있었던 것과 달리, 1화의 그림이 계속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는 반응이 있었다. 이러한 지점 또한 웹툰이라는 장르가 전달하는 의미가 유동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한다.

* 인용 부분과 관련하여, 영어 서비스에서는 전체가 대문자로 표기되었으나 본고에서는 소문자로 변경하여 표기했음을 밝혀둔다.

41 이 텍스트는 중세 말기부터 르네상스 초기(12~14세기)의 이탈리아를 시공간적 배경으로 설정한다. 에트루리아 문명의 등장을 비롯하여 당시의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이 상당한 역사적 고증을 바탕으로 재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재현 양상은 독자로 하여금 실제 역사적 맥락을 환기하면서 허구적 서사를 읽어나가도록 유도한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언니, 이번 생엔 내가 왕비야」와 그 영어 번역텍스트 「I'm the Queen in This Life」의 구체적인 번역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동명의 웹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이 텍스트는 왕위 찬탈을 꾀하는 약혼자를 도왔다가 배신당한 아리아드네의 이야기다. 약혼자는 아리아드네 대신 전 황태자의 아내였던 그녀의 언니를 왕비로 선택했고, 결국 아리아드네는 언니의 손에 죽임을 당한다. 15년 전으로 회귀한 아리아드네는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간 이들에게 복수를 시도한다. 이 이야기는 악녀가 회귀하여 속죄와 회개를 통해 구원 또는 행복한 결말에 이른다는 모티프를 일정 부분 따르면서도, 회귀 후 도덕적 면모를 보이기보다는 생존과 복수에 집중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계략을 일삼는 모습을 보여준다. 게다가 회귀의 의미에 운명의 인과를 버티며 미래를 바꾸어나가는 인물의 상황이 더해지면서, 단순한 복수를 넘어 영웅서사와 같은 고난과 극복 과정이 나타난다. 그 과정에서 인물의 감정은 선악의 이분법적 구도에 갇히지 않고 복합적이고 입체성으로 그려진다. 즉, 악녀를 주인공으로 한 주류 로맨스 판타지의 서사 패턴을 따르면서도 그와 차별화되는 지점을 드러낸다. 이러한 특징은 이야기의 초점과 장르 문법에 따라 독자들에게 다양한 감상과 해석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을 내포한 텍스트임을 시사한다.[42]

3장에서는 「I'm the Queen in This Life」에서 젠더 문제가 번역 과정에서 어떻게 다른 의미적 효과를 발생시키는지 들여다보고자 한다. 4장에서는 문화적 개입에 따른 창조적 번역이 텍스트의 의미 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심으로 개입하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3 독자의 젠더 감수성이 이끄는 번역의 효과

42 이는 한국어판과 영어판의 연재페이지에 제시된 내용 소개의 차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어판에서는 전생에서 그녀를 배신했던 약혼자와 그녀가 죽였던 왕자가 모두 주인공에게 구애하는 상황을 복수 서사와 함께 강조하면서 로맨스적 요소를 부각한다. 반면, 영역본은 궁정의 정치적 음모 속에서 주인공이 자신의 기지와 용기로 비극적 미래를 방지하려는 투쟁과 관련된 성장 서사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차이가 곧바로 텍스트의 차이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지만, 원텍스트와 번역텍스트가 동일한 서사를 공유하면서도 수용적 맥락에서 서로 다른 의미망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I'm the Queen in This Life」 전반에서 두드러지는 번역 양상은, 여성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나 통념을 재생산하는 대사들이 우회되거나 약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번역은 현대의 젠더 감수성과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을 반영하여 원문의 여성혐오적 표현을 의역하여 독자 수용성을 높이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11화에서 회귀 전 아리아드네의 약혼자였던 체자레의 "계집애가 영리한 걸 대체 어디다 씁니까."라는 노골적인 성차별적 발화는 "Be that as it way, what use is a book without its cover?(어찌되었든, 표지가 없는 책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와 같은 은유적 표현으로 번역된다. 이는 직접적인 여성혐오적 발언을 완곡한 방식으로 의역하여 독자의 불쾌감을 낮추어 수용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43] 달리 말하자면, 번역자의 가치관이 반영된 의도적 개입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독자의 수용성, 시장의 요구, 문화적 맥락이 번역과 얽히면서 만들어낸 효과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번역 방식은 단순한 의역에 그치지 않고, 이 텍스트의 서사와 장르에 대한 이해 방향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1화에서 체자레의 "여자의 적은 여자라더니, 친자매 간에도 예외가 없구려!"라는 발언은 "Such a jealous person you are! You would truly seek to sully your own sister's good name?(넌 정말 질투가 많구나! 네 언니의 명예를 더럽히려 하다니)"으로 번역

43 그런데 이러한 번역은 귀족 남성의 여성혐오적 태도를 정제된 언어로 표현함으로써 오히려 인물에 대한 비판적 의미의 강도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여지가 있다. 그러나 회차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나 원텍스트와 번역텍스트 모두 체자레라는 인물을 향한 비판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인물에 대한 이해를 왜곡하지 않는 수준에서 문화적 맥락을 반영한 번역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원작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추정되는 번역을 통해 인물에 대한 독자의 비판적 인식이 확장되는 경우도 있다. 체자레가 아리아드네에게 보낸 편지의 "예쁜 얼굴로 꾀어서 결혼할 여자분은 당신으로 하지."(36화)라는 구절은 원문에서 체자레 자신의 외모를 지칭하는 것이었으나, "I have decided that a woman of your beauty is fit to be my bride, after all.(결국 당신처럼 아름다운 여성이 내 신부로 어울린다고 결정했어.)"로 번역되면서 여성을 외모로 평가하는 인물의 대상화된 시선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의미의 전환은 체자레라는 인물에 대한 상반된 반응을 이끌어냈다. 36화 원텍스트의 베스트 댓글에서는 체자레의 매력에 대한 언급이 다수였던 반면, 영어 번역 텍스트의 댓글에서 가장 많은 독자의 호응을 얻은 내용은 여성을 외모만으로 평가하거나 자만심을 드러내는 인물을 비판하는 것이었다.

된다. 체자레는 여성을 정복과 소유의 대상으로 여기며, 여성성과 남성성에 대한 고정된 통념을 가진 인물로 그려진다.[44] 이러한 맥락에서 해당 장면은 인물의 여성혐오적 발언의 강도를 약화시키는 맥락에서 의미를 풀어서 번역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이 번역이 만들어내는 추가적인 효과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원텍스트의 "여자의 적은 여자"라는 관용구는 여성 간 경쟁을 일반화하는데, 번역 과정에서는 이를 개인의 질투심이라는 인물의 구체적 감정으로 전환하여 여성 간의 부정적 관계를 통념적으로 묘사하기보다는, 개별적 갈등을 부각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텍스트의 전체적인 서사구조와도 연관된다. 「언니, 이번 생엔 내가 왕비야」라는 제목은 자매 간 대결 구도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서사에서 주인공의 주요 갈등은 정치, 경제, 외교적 차원 등 폭넓게 전

---

44 1화에서 체자레는 "가장 강한 수컷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여자가 어울려."라고 말하는데, 이는 영어로 "After all, the strongest male deserves the most beautiful female, as it is in nature.(결국, 가장 강한 남성이 가장 아름다운 여성을 차지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야)"로 번역된다. "암컷이란 이 얼마나 저열한가."는 "Away with you! I will not tolerate such base feminine wiles!(물러가라! 그런 천박한 여성스러운 술수는 용납하지 않겠어!)"로 번역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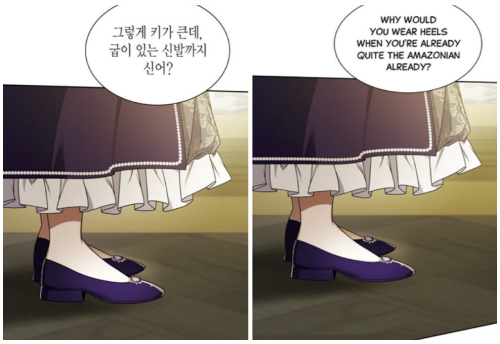
이처럼 한국어판에서는 보다 직접적이고 공격적인 어조로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이 사용된 반면, 영어 번역에서는 노골적인 비하 어조를 완화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번역 차이에도 불구하고, 해당 인물을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독자 반응은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게다가 흥미롭게도, 원텍스트보다 여성혐오적 표현이 다소 완화된 번역텍스트에서 오히려 인물의 여성혐오적인 태도를 더욱 강하게 비판하는 독자 댓글이 발견된다. 한국어판에서 인물의 발화는 대중문화 텍스트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표현으로 수용된다고 짐작되는 반면, 영어서비스의 독자들은 이 인물의 여성혐오적 면모를 더욱 강하게 비판한다. 예를 들어, "The amount of idiotic and misogynistic energy I'm getting from cesare is horrible"〔that weird alien(Nov 14, 2022)〕이라는 댓글은 '여성혐오'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하며 인물을 비판하고, 많은 독자들의 추천과 지지를 받는다.

이러한 현상은 원텍스트에서 체자레의 발화가 부정적으로 비춰질 여지가 크지만, 동시에 한국적 대중문화 텍스트에서는 이러한 표현이 비교적 자주 사용되며 익숙하게 수용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영어권 독자들은 대중문화 텍스트에서도 젠더적 감수성에 대한 기대가 높음을 나타내며, 번역된 표현에서도 젠더적 편향을 강하게 문제삼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동일한 서사가 번역을 통해 서로 다른 문화적 맥락에서 수용될 때 나타나는 반응의 차이를 보여준다.

개된다. 자매 간의 대립은 상대적으로 부차화되며, 언니 캐릭터인 이사벨라는 상대적으로 평면적인 악역으로 그려져 다른 대항 인물들과 비교할 때 갈등 구도가 상대적으로 덜 격화된다.[45] 영문 제목 「I'm the Queen in This Life」에서 '언니'가 생략된 것은, 우선적으로는 한국어 호칭의 번역 불가능성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크지만, 결과적으로 여성 인물의 성장과 권력 쟁취라는 서사적 초점을 부각하는 효과를 낳는다. 이는 자매 간의 경쟁보다는 주인공의 정치적 성장과 주체성을 강조하는 서사적 흐름과 맞물린다. 연재 시작 당시 원제가 「서출 영애의 우아한 복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언니'와의 대립 구도가 서사의 핵심 갈등이 아닐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로 복수 대상은 언니뿐만 아니라 여러 인물과 상황을 포괄한다. 오히려 번역 과정에서 생략된 '언니'라는 표현이 원텍스트의 서사적 맥락을 좀 더 잘 드러낸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다.

체자레의 대사뿐 아니라, 이사벨라의 대사에서도 번역 과정에서 초점이 변화한다. 23화에서 이사벨라의 "나는 가문의 이름으로 불려야 하는 거야?"라는 대사는 "While I'm merely accessory to that of my father?(나는 그저 아버지의 부속물일 뿐이야?)"로 번역된다. 이는 한국어에서 '가문'이 명확히 지칭하는 개념이 영어에서는 직관적으로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의 부속물'과 같은 독자들이 인물의 종속적 위치를 직접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표현으로 조정되어 번역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가문'을 'family name' 등으로 직역에 가깝게 번역하지 않은 이와 같은 선택으로 원텍스트의 표현에 내포된 계급적 의미가 약화된다. 이사벨라는 추기경의 딸이지만 평민 신분이므로 '데 마레 영애'로만 불릴 뿐, '이사벨라 데 마레'라는 온전한 이름을 얻지 못한다. 이사벨라에게 '가문'은 그녀의 계급적 위치와 가부장제 하의 종속적 지위를 동시에 드러내고

45 웹툰 2화에서 아리아드네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사벨라는 악역으로 등장하지만,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의 가치와 권력을 드높이는 방법을 잘 아는 영리한 인물로 그려진다. 원텍스트와 번역텍스트 모두에서 입체적이고 매력적인 캐릭터로 평가받으며, 독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십 대 후반으로 회귀한 상황에서 이야기가 전개됨에 따라, 주인공에 비해 미숙한 이사벨라의 모습이 강조된다. 이로 인해 원텍스트와 번역텍스트의 독자 모두 이사벨라를 주인공의 유일한 적대자로서 부여하던 의미는 축소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림 3] 대사에 “amazonian”이 추가된 장면(23화)

있는 것이다. 이러한 번역상의 차이는 두 문화권의 호칭 체계 차이에서 기인된 번역의 변화와도 연결된다. 원텍스트에서 ‘큰 데 마레 영애’, ‘작은 데 마레 영애’ 등으로 세밀하게 구분되던 호칭이 ‘Lady Isabella de Mare’, ‘Lady de Mare’ 등으로 다소 임의적으로 번역되면서, 신분과 이름의 긴밀한 관계가 상대적으로 약화된다.

앞서 살펴본 두 사례가 원본의 의미를 의역하는 과정에서 생긴 효과라면, 보다 적극적인 해석적 개입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형성한 번역 사례도 존재한다. 23화에서 “그렇게 키가 큰데, 굽 높은 신발까지 신어?”라는 대사가 “Why would you wear heels when you’re already quite the amazonian?(이미 아마존 전사 같은데, 왜 굽 높은 신발을 신으려는 거야?)”으로 번역된 장면이 그 예다(그림 3). 원텍스트에서 이 발화는 키가 큰 여성의 신체를 여성성 결여로 규정하고, 여성이 남성을 돋보이게 해야 한다는 발화자의 가부장적 시각을 드러낸다.

그런데 번역 과정에서 추가된 ‘amazonian’이라는 표현은 그 의도와 무관하게 새로운 해석 가능성을 열어준다. 독자들 역시 이러한 의미 변화를 포착했는데, 연재분의 한 댓글에서 이 표현이 ‘여성 전사’를 연상시키며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는 의미를 함축한다고 해석하고 있다.[46] 이러한 독자 반응은 여성의 신체에

46 Deimon Winters(Jan 23, 2023) “Amazon’s were some of the most recognized warriors in history. By calling a woman an Amazon, you’re basically saying she’s someone you can’t handle.” 이 댓글은 541개의 추천을 받고, 6개의 답글이 달렸다. 이 댓글은 상위 추천 댓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해당 회차 댓글의 주요 내용이 키가 작은 남성이 여성에게 하는 발화를 문제 삼는 데 집중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남성 인물에 대한 비판은 한국어 플랫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영어 번역본에서는 ‘아마존’이라는 수사가 포함되면서, 단순한 비판을 넘어 캐릭터와 발화에 중층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아마존’이라는 표현이 생성하는 다층적 해석 가능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대한 통제와 폭력적 시선에 저항하는 읽기를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이는 작품의 서사적 맥락과도 연결된다. 서사 전반에 걸쳐 주인공이 자신의 신체에 대한 트라우마로 섭식장애를 겪는 등 내면화된 억압을 보여주는 상황에서, 'amazonian'이라는 표현은 그의 신체성에 대한 새로운 해석 가능성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번역 양상들은 로맨스 판타지 장르에서 발견되는 여성 주체의 성장이라는 의미를 강조한다. 여성 간 경쟁이나 가부장제 하의 종속, 신체에 대한 억압 같은 요소들이 번역 과정에서 재해석되면서, 주인공의 정치적 성장과 주체성 획득이라는 의미가 더욱 선명해지는 효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번역텍스트는 독자들로 하여금 원텍스트와 마찬가지로 여성의 신체를 통제하는 가부장적 시선을 비판하는 의미를 느끼게 하는 동시에 주인공의 신체와 정체성을 재해석하도록 이끄는 역할을 한다. 번역을 통해 새로운 의미가 개입된 것이다.

여러 행위자들의 개입을 통해 변화된 번역텍스트 「I'm the Queen in This Life」는 원텍스트와 동일하지 않은 상호작용적 산물로, 번역 과정에서 발생한 물질-담론적 상호작용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를 읽는 독자들은 원텍스트 독자 반응과 접점을 보이면서도, 다른 해석적 반응을 제출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원텍스트의 의미를 고정시키기보다는, 원텍스트가 가지는 의미를 더욱 다층적이고 두텁게 만들어 준다. 번역은 원텍스트를 그대로 반복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번역자와 독자, 문화적 맥락이 함께 새로운 의미를 형성하는 역동적 과정임을 보여준다.

한편, 마지막 사례가 흥미로운 또 다른 이유는 원작에는 없던 '아마존'이라는 서구 신화적 전통에서 비롯된 상징이 추가된 점이다. 이는 규범적인 젠더 질서에 저항하는 서구적 요소가 텍스트에 도입되면서, 인물을 통해 제시되는 젠더 개념을 다양한 문화적 맥락 속에서 더 풍부하게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이러한 요소는 서사의 다른 장면에서도 나타나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4 서구 문학과의 접속과 젠더 재현의 재구성

3장에서는 의역 과정에서 나타난 의미가 초과하는 지점에 주목했다면, 4장에서는 원텍스트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는 목적을 넘어 원텍스트의 언어적

맥락에 얽매이지 않는 능동적인 선택과 맥락에 따른 창조적 해석이 나타나는 장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때 번역은 원텍스트와는 또 다른 다층적 의미를 만들어내는 수행적 행위로 나타난다.

이러한 장면들은 일차적으로 인물의 감정을 밀도 있게 드러내기 위해 선택한 번역 방향이 인물의 능동성을 강화하거나 복합적인 감정이나 여성이 처한 구조적 문제를 강조하는 양상으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47] 간단한 예로, 92화에서는 아리아드네의 "손해를 덜 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야."라는 내적 발화가 "The stray path must serve to conceal the trail of truth and its sullied soil.(벗어난 길은 진실의 흔적과 더럽혀진 땅을 감추는 데 쓰여야 한다.)"라고 번역된다. 원텍스트의 대사가 인물의 계산적 성격을 강조하는 반면, 번역텍스트에서는, 벗어난 길은 진실의 흔적과 더럽혀진 땅을 감추는 역할을 한다는 은유적 표현으로 변형된다. 이를 통해 자신의 선택이 정당한 길이 아님을 알면서도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이러한 선택을 행할 수밖에 없는 인물의 복잡한 내면 상태와 결연한 의지를 상기시킨다. 이처럼 「I'm the Queen in This Life」의 번역은 90화를 전후로 인물의 내적 독백과 고뇌가 극대화되는 서사적 상황에서 직역 또는 의역의 방식을 넘어 상징과 은유 등을 활용한 창조적 번역이 빈번하게 이루어진다.[48] 독자로 하여금 언어텍스트의 의미를 더욱 복합적으로 읽게끔 유도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독자들은 시적인 느낌이 드는 대사가 읽기 쉽지는 않지만 강렬한 인상을 준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이러한 표현 방식이 텍스트의 이해와 감상을 어렵게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49]

---

47 여주인공의 능동성을 그리는 방식은 단순한 어휘의 첨가가 아닌, 원문과 확연하게 다른 표현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억지야!"(81화)가 "Then you are jealous!(그렇다면 당신은 질투하는군요!)"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가 "I suppose that remain to be seen my envious prince.(그건 두고 봐야겠네요, 질투심 많은 왕자님)"로 번역되는 등, 상대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지적하거나 우회적 표현을 통해 여성 인물의 통찰과 주도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번역이 이루어진다.

48 이러한 현상의 기저에는 번역 행위자의 변화 또는 번역에 참여하는 이들의 복수성이라는 문제가 자리한다. 이러한 현상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은 웹툰 번역이 지닌 우연성, 역동성, 그리고 집단 번역 과정에서 번역 행위자가 비가시화되는 특수성을 보여준다.

49 91화의 다음과 같은 댓글 등을 통해 이러한 반응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의 상당 부분은 영어권 문화의 전통을 활용하는 방식을 통해 나타난다. 원텍스트에는 없던 '세이렌'과 같은 표현이 추가되기도 하고,[50] 출처를 직접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지만 독자들에게 셰익스피어적인 것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 여러 차례 등장한다.[51] 이러한 변형의 일부는 젠더 문제를 전달하

Snarkwit(Apr 29, 2024) "is it just me or has the dialogue gotten INCREASINGLY poetic these last ten or so chapters? maybe I need to reread, this is feeling more and more like Shakespeare. I don't hate it, but it feels jarring to pick this up one chapter at a time"

TayDeuze(Apr 29, 2024) "The heavens shall burn before a drop of your blood is shed." is one hell of a line."

50 92화의 다음과 같은 대목에서 '세이렌'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번역으로 바뀐다. 이 대목은 그림 4의 장면과 이어지는 부분으로, 번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리아드네가 물속에 빠진 것 같은 그림텍스트의 영향이 개입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어차피 따라붙을 추문이라면/ 그걸 피할 수 없다면/ 지금 희생하는 척해서/ 왕가의 사람들에게 점수라도 따놓는 게 나을 거야."라는 대목이 "And if must I flounder like a siren made voiceless./And the deluge of scorn will let the vortex consume me with voracious appetite./Down to the unfathomable abyss whose clutches I cannot escape./I shall let the creatures of the deep feast on my cold remains. /And hope that the royal hands that dredge me out of the sea will at least honor my ignoble sacrifice on their behalf(그리고 만약 내가 목소리를 잃은 세이렌처럼 허우적댈 수밖에 없다면,/경멸의 홍수는 탐욕스러운 소용돌이로 나를 집어삼키게 하겠지./나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심연의 깊숙한 곳으로 가라앉으며,/ 심해의 생물들이 차가운 내 잔해를 먹잇감 삼도록 내버려두겠어./ 그리고 내가 바다에서 건져 올려진다면,/ 적어도 나의 비천한 희생이 왕족의 손에 의해 조금이라도 영예롭게 기억되기를 바랄 뿐이야.)" (밑줄: 인용자)

51 독자들은 해당 장면에서 셰익스피어의 구체적인 작품을 거론하지는 않지만, 이 웹툰이 점점 셰익스피어 같은 느낌이 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흥미롭다. 몇몇 회차에서 이러한 댓글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93화의 댓글에 나타나는 독자 반응을 일부 소개한다. (밑줄: 인용자)

Moon Aura(May 13, 2024) "Yall someone explain to me whats going on they've been speaking more Shakespeare style every chapter and its hard for me to understand. Is she leaving Alfonso?"

Gryffindor_girl02(Jul 01, 2024) "Unpopular opinion, I actually love that the dialogue has gotten a bit more Shakespearean. yes it's harder to understand but it's so beautiful and fits the time. I just have to re read sometimes"

DetectiveCat(May 13, 2024) "I think this is truly the most beautifully written WEB-

는 방식과 의미에서 차이를 형성한다. 원텍스트의 언어적 표현은 여성을 향한 폭력과 비난이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서사적 흐름과 사건의 구체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데 기능한다면, 번역텍스트에서는 영문학의 전통과의 상호텍스트성을 환기하는 표현을 택함으로써 서사 바깥의 맥락을 끌어와 젠더폭력의 구조적 측면을 좀 더 부각하고 있다. 이는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번역된 결과물과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영어권 문화에 익숙한 독자층을 겨냥한 다분히 의도된 번역이라고 할 수 있다.[52]

다음의 번역 사례들에서 이러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4를 보면, 원텍스트에서는 아리아드네를 중심으로 전개된 구체적인 사건을 바탕으로 서사 속 인물에게 가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비난을 나열하고 있다. 이러한 장면을 통해 여성을 대상화하는 시선을 읽어낼 수 있다. 반면, 번역에서는 은유와 상징을 활용한 문학적 수사를 통해 여성을 향한 폭력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절을 잃은 더러운 여자”가 “surrendered her innocence without a fight(저항 없이 그녀의 순결을 내준)”로 번역된다. 원텍스트는 여성의 몸을 순결이라는 잣대로



[그림 4] 비난과 추문에 휩싸이게 된 모습을 상상하는 장면(92화)

TOON I’ve ever read, the attention to detail with the Shakespearean talk and the dedication to stick to historically accurate societal expectations is so incredible. The emotion I feel from each chapter is truly truly unmatched. Kudos to u author.”

52 이 장에서 분석하고 있는 대표적인 두 장면과 관련된 스페인어, 중국어 번역 텍스트를 검토해 본 결과, 해당 번역본은 원텍스트(한국어)의 자구와 의미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은 방식으로 번역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른 언어로 번역한 텍스트의 경우에는, 국내에서만 열람이 허용되는 경우(일본)가 있고, 독일어, 프랑스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의 경우에 대해서는 언어적 제약으로 검토하지 못했음을 밝혀둔다.

평가하는 가부장적 시선에 따라 도덕적 단죄를 내리는 시선의 폭력을 그리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면, 번역텍스트에서는 권력 관계 속에서 여성이 놓인 복잡한 상황을 암시한다. '저항 없이'라는 표현은 피해자의 수동성을 비판하는 통념과 동시에 저항 자체가 불가능했던 구조적 억압의 문제를 드러낸다. 게다가 이는 그림텍스트가 전달하는 의미와도 조응한다. 여기서 아리아드네의 얼굴은 눈코입이 없는 상태로 그려지는데, 이는 현재 상황에 대해 아무 항변도 할 수 없는 침묵해야 하는 여성의 상황을 보여준다. 그림텍스트를 통해 전달되는 이와 같은 의미는 이어지는 내용 "a siren made voiceless(목소리를 잃은 세이렌)"으로도 연결된다.

이와 같은 번역은 언어텍스트의 의미를 새로이 쓴 것이지만, 단순한 언어적 전환을 넘어서는 과정을 함축한다. 그림텍스트를 통해 전달되는 의미, 웹툰이 환기하는 서구 중세의 시공간적 배경, 현대 독자들의 젠더 감수성, 플랫폼의 번역 정책 등이 상호작용하며 새로운 의미를 생성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여러 물질, 번역 행위자들이 견지한 여러 담론들이 얽혀 창출된 결과물이다.[53]

셰익스피어의 구체적인 텍스트를 떠올리게 하는 번역 전략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수녀원에나 가버려"는 "Get thee to a nunnery"로 직역되는데, 이는 「I'm the Queen in This Life」를 읽는 독자들이 셰익스피어를 떠올리는 반응과 만나 『햄릿』과의 상호텍스트적인 관계를 통한 의미 확장을 보여준다.[54] 원텍스트

53 물론 셰익스피어를 비롯한 영미문학의 전통이 번역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번역자(들)의 의도와 정체성과 무관하지 않은 선택된 행위다. 그러나 이 글은 버라드의 논의를 참고하여 이를 개별 행위자의 의도라기보다는 여러 요인이 얽혀 만들어낸 효과로 보는 관점으로 이 현상을 살펴본다.

54 『햄릿』에 나온 해당 부분은 다음과 같다. "Get thee to a nunnery. Why, wouldst thou be a breeder of sinners? I am myself indifferent honest, but yet I could accuse me of such things that it were better my mother had not borne me.…We are arrant knaves all, believe none of us. Go thy ways to a nunnery. (3.1.121-30)/ 그대는 수녀원으로 나 가시오. 아니 그래, 그대는 죄인을 낳고 싶단 말이오? 나 스스로 꽤 정숙한 인간으로 자처하고 있으나, 어머니가 나를 낳지 않았더라면 하고 바랄만큼 스스로 봐도 자책감이 드는 죄를 지니고 있소.…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악당, 아무도 믿지 마시오. 수녀원으로 가란 말이오.." 원문과 번역문은 다음 논문에서 발췌하였다. 최민경, 「햄릿과 오필리아의 관계-수녀원 장면과 극중극 장면을 중심으로」, 『Shakespeare Review』 제43권 4호, 한국셰익스피어학회, 2007, 793쪽. 최민경의 논문은 햄릿이 '수녀원 장면'에서 오필리아를

에서는 시대적 맥락과 결부된 여성의 상황을 전달한다면, 더하여 번역텍스트에서는 기호를 통한 직접인용 방식을 택함으로써 『햄릿』의 유명한 대사 "Get thee to a nunnery"를 차용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55] 또한, 원텍스트에서의 위치를 바꾸어 가장 마지막에 이 문장을 배치하면서, 세로스크롤 방식의 웹툰의 물질성에 맞추어 의미상의 강조 효과를 준다.

"Get thee to a nunnery" 앞에 원텍스트에는 없던 "as tempting as a flame to a moth, as deadly as a wave to a drowning man(나방에게 불꽃만큼이나 유혹적이며, 물에 빠진 사람에게 파도만큼 치명적이다)"이라는 시적 표현이 추가 배치되면서 새로운 의미 층위를 획득하는 부분도 주목할 만하다.[56] 번역텍스트에 추가된 나방과 불꽃, 익사와 파도의 이미지는 여성의 매혹적 성격을 위험하면서도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가부장적 이중 잣대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이는 단순한 문체적 변환이 아닌, 사회적 통제 메커니즘에 대한 비판적 조명으로 이어진다. "수녀원으로 가라"는 명령은 유혹적이지만 위험한 여성 섹슈얼리티를 감금과 억압이라는 '해결책'으로 귀결시키는 가부장제 논리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번역은 셰익스피어 극의 유명한 대사를 활용해 그 안에 내포된 젠더 정치학을 비판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의미망을 새롭게 창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영문학의 전통에 익숙한 독자들을 대상으로 한 상호텍스트적인 이해가 가능해짐으로써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의 보편적 메커니즘을 더욱 정

향해 어머니로부터 비롯된 여성혐오가 투사되고 있지만, 수녀원으로 가라는 것은 "더러운 욕정의 세계"(798쪽)로부터 오필리아를 구원하고자 하는 사랑의 행동으로 해석하고 있다(위의 글, 790-798쪽).

55 「언니, 이번 생엔 내가 왕비야」에서 수녀원은 사고를 치거나 감당할 수 없는 추문 등으로 인해 가족에게 버려진 여성이 가는 곳으로 그려진다. 이러한 서사적 설정은 번역 여부와 관계없이 공통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번역 과정에서 이 대사가 전후의 다른 대사와는 달리 직접 인용된 방식으로 제시된 점이 주는 효과에 주목하고자 한다.

56 이 부분은 원텍스트의 "남자 여럿에게 꼬리 치더니 꼴 좋다."를 번역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본문에서는 글의 배치가 바뀌었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내용이 삭제되고 새로운 표현이 추가된 것으로 해석했다. 이를 원텍스트의 변형으로 본다면, 글의 배치를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의미 전달 및 해석 차원에서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교하게 읽어낼 수 있는 텍스트가 생성된 것이다. 독자들은 이러한 차이를 세세히 지적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텍스트를 구체적인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해하면서 성폭행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르네상스 시대의 문제를 지적하는 반응을 보이고, 주인공의 일이 그녀의 위치에 있는 다른 시대의 여성들의 운명에 비해 온건하다고 지적하거나 현재를 포함하여 그와 같은 여성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가 없다고 언급한다.[57]

광기를 다루는 다른 회차의 장면에서도 이러한 특징이 발견된다. 아리아드네의 독백 장면에서 원텍스트의 직설적이고 현대적인 어조는 셰익스피어 극의 전통을 환기하는 시적 형식으로 번역된다. “Hey nonny nonny”로 시작하는 광대의 노래와 중세풍 운율 및 어휘 선택은 중세를 배경으로 하는 텍스트의 분위기

57 92화의 댓글에서 한 독자는 성폭행 피해자들이 항상 비난받는 르네상스 시대가 싫다고 언급하는데(This is why I hate the renaissance era, rape victims were always blamed. TalkingSalad, May 06, 2024), 추천수로 따지면 상위 6위 정도에 위치하고, 17개의 답글이 달린다. 답글에서는 현재에도 성폭행 피해자를 남성을 유혹했다는 죄로 처벌하거나 심지어 살해하는 법을 허용하는 나라가 있다는 내용, 자신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이야기하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또한, 여성의 문제로 보는 시각이 소설적 과장에 불과하다는 답글에 대해, 문제를 축소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흥미롭게도, 한국어 플랫폼의 베스트 댓글에서도 유사한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 한 댓글에서는 인물이 성폭행을 실제로 당했는지 아니면 추문을 걱정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었는데, 여기에 12개의 답글이 달렸다. 그 중에는 겁탈하려다 죽은 남성이 아니라, 성폭행을 당할 뻔한 여성이 치욕스럽게 여겨지는 것이 문제라는 의견과 현시대에 대입하면 말도 안 된다는 언급도 있고, 이를 비판하는 내용도 있다. 또한, 중세 유럽 귀족사회, 일제강점기, 이슬람 사회, 그리고 현대 한국 사회에서도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하고도 이를 말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도 찾아볼 수 있다.

영어와 한국어 댓글의 답글 내용에는 유사한 논점이 많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논쟁적 답글을 이끈 첫 댓글의 차이다. 영어 댓글은 성폭행 피해자 문제를 중심으로 사회적 부조리를 비판하며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인 반면, 한국어 댓글은 서사적 이해와 관련된 질문에서 시작하여 답글 과정에서 논의가 확장된 경향이 있다. 이는 번역 과정에서 발생한 서사적 초점과 감정의 강도 차이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즉, 두 플랫폼의 댓글은 본질적으로 유사한 의미를 전달하지만, 번역된 텍스트가 독자에게 다른 해석적 초점과 감정적 반응을 유발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더하여, 두 플랫폼의 92화의 댓글 양상을 보면, 모두 아리아드네의 내적 갈등보다는 알포소의 어머니인 마르그리트 왕비의 말과 행동에 대한 감탄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함께 지적해 둘 필요가 있다.

를 고조시킨다. 그런데 이러한 변형은 텍스트의 의미를 더해주는 차원을 넘어서는 의미를 형성한다. 95화에서는 알폰소가 아리아드네를 겁탈하고 죽이려는 미레이유 공작을 살해한 현장을 목격한 증인인 미치광이 광대가 사형당했다는 사실을 전해 들은 후의 아리아드네의 심리가 잘 드러난다. 아리아드네는 알폰소와 결혼하여 미래의 왕비가 되리라는 욕망을 버리고 대신 알폰소의 책사로서의 역할을 맡겠다고 결심한다. 결심 이후 현재의 곤경을 타개하고자 책략을 세우는 모습은 정의롭기보다는 교활해 보이는 쪽에 가까운 이미지로 그려진다.

이때, 광대의 노래 중 "여자는 둘 중 하나야/ 남자를 미치게 하거나/ 자기가/ 미쳐 있어!"는 "Chained to a woman more wicked than he~/ How she struggles to rot his poor mind on a lie~/ When no villain e'er was…/ …So demented as she!(그보다 더 사악한 여인에게 속박된 채~ / 그녀는 거짓으로 그의 불쌍한 정신을 썩이려 애쓰고~ / 그 누구도 악당이었던 적이 없었네~ /…그녀만큼이나 광기에 사로잡힌 이는!)"이라고 번역된다. 번역 과정에서 원텍스트의 구절은 여성을 사악함, 거짓, 악당, 광기와 같은 개념이 수식되는 존재로서 남성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강력한 존재이자 복잡한 행위자로 묘사한다. 이러한 번역은 이어지는 내용에서 자신이 미쳐있다는 자각과 함께 책략을 세우는 아리아드네의 모습이 그림과 함께 전면화되는 장면과 잘 연결된다. 원텍스트는 광대의 목소리를 빌려 여성을 이분화하여 살펴보는 가부장적 시선을 드러낸 후 인물의 각성을 보여준다면, 번역텍스트는 광대의 말에서부터 여성의 능동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변형되고 있다. 또한, 광대의 목소리가 연출되는 그림으로부터 전달되는 광기가 아리아드네의 광기로 이어지는 서사적 흐름은, 세로스크롤 형식에 맞춘 연출에 따라 그 의미가 점점 증폭되고 있다.[58]

58 '광기'가 광대에게서 아리아드네에게로 이어지며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연출은 웹툰으로 각색되면서 새롭게 나타나는 효과라 볼 수 있다. 웹소설에서는 광대의 증언에 분노한 왕의 모습(140화)과 아리아드네가 결심과 책략을 내놓는 모습(143화)이 별도로 전개되어, 인물의 선택이 광기 어린 모습으로 그려지지 않는다. 따라서, 인물의 광기에 대한 강조는 웹소설에서 웹툰으로 각색되면서 추가되었으며, 영어 번역에서는 그 의미가 더욱 부각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5] 마레이유 공작을 죽인 현장을 본 증인인 미치광대의 말을 떠올리며 미쳐있는 여성으로 자신을 정체화하는 인물의 모습이 드러나는 장면(95화, 세로스크롤로 전개되는 이야기 흐름을 잘라서 편집함)

이러한 맥락을 고려할 때, 인물이 보여주는 광기의 의미는 원텍스트와 번역텍스트에서 미묘한 차이를 생성한다. 그림5와 관련된 원텍스트의 인물의 내적 발화는 다음과 같다.

> 원텍스트: 남자를 미치게 하거나…/ 자기가 미쳐 있거나…/ …맞아/ 난 미쳐 있지/ 아니,/ 미쳐 있어야만 해/ 알폰소를 구하기 위해서,/ 왕비님을 구하기 위해선,/ 내가 미쳐 있어야 해./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말들을 하겠어.”[59]

> 번역텍스트: The jester paints me a witch who drives a man to madness…/…Or a madwoman herself, who knows not the extent of her villainy./Jesters do oft prove prophets./ Indeed, I am a demented woman…/ …For no virtue drives me…/…But the sickening hold of my obsession…/…To save the man I love./ And to save the woman who birthed and raised him…/…I shall wield my madness like a flail to smite my foes./Without my wild-eyed

59 글자 크기나 굵게 표시하기, 글자 폰트의 변화 등을 통해 이미지라는 특성을 활용하여 의미상의 강조점을 두고 있으나 여기서는 이를 다 반영하지 못했음을 밝혀둔다.

resolve…/ …I would never dream of uttering such bold words.
어릿광대는 나를 미치게 만드는 마녀로 그리지…/…혹은 자신의 악행이 얼마나 끝이 없는지 모르는 미친 여자라고./어릿광대는 종종 예언자가 되곤 하지./그렇다, 나는 광기에 사로잡힌 여자다…/…어떠한 미덕도 나를 이끌지 못한다…/…오직 소름끼치는 집착만이 나를 사로잡고 있을 뿐이다./…내가 사랑하는 남자를 구하기 위해./ 그리고 그를 낳고 키운 여자를 구하기 위해…/…나는 광기를 도리깨처럼 휘둘러 적들을 쳐부술 것이다./이런 광기 어린 결단이 없다면…/…이토록 대담한 말을 꺼낼 꿈조차 꾸지 못했을 것이다.

원텍스트에서 아리아드네는 알폰소와 왕비를 구하기 위해 "미쳐 있어야만 한다"고 말하며, 이는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상태로서의 광기를 암시한다. 그러나 영어 번역에서는 "Indeed, I am a demented woman(그렇다, 나는 광기에 사로잡힌 여자다)."[60]이라는 선언적 표현을 통해 광기를 자발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며, 나아가 "I shall wield my madness like a flail to smite my foes(나는 광기를 도리깨처럼 휘둘러 적들을 쳐부술 것이다)."라는 적극적 의지의 표명으로 이어진다. 여기서 광기는 더 이상 불가피한 상태가 아닌,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활용하는 힘으로 재해석된다.

이와 같은 여성의 능동성은 "마녀(witch)"와 같은 표현과도 연결되어 나타난다. 서구 역사에서 마녀는 불온하면서도 위협적인 여성의 힘을 상징한다. 번역텍스트에서 아리아드네의 미친 여자 되기가 미덕이 아닌 집착, 악행, 폭력과 연계되어 서술되고 있다는 점은 이러한 힘의 의미를 더욱 강조한다. 서구 문화의 자장에서 발견되는 광기와 마녀와 같은 모티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식과 만나 광기가 단순히 비정상 상태가 아닌 역사적으로 여성 억압과 연결된 강렬한 문화적 상징임을 암시하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의미 전환은 그림텍스트와의 조응 속에서 이루어진다. 언어텍스트의 번역이 그림이 표현하는 인물의 감정과 태도

60 'am'이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은 원문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강조표시 또한 인물의 주체성을 강조한다.

를 더욱 선명하게 부각시키면서, 단순한 삭제나 축소가 아닌 의미의 확장을 이루어내고 있다. 이는 웹툰이라는 매체의 특성을 활용한 창조적 문화 번역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형이 모든 독자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독자수용의 맥락을 고려할 때, 「I'm the Queen in This Life」의 번역은 독특한 전략적 선택으로 보인다. 독자가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웹툰의 매체적 성격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번역 방식은 텍스트의 난해함을 증가시키고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일반적이지 않다. 아리아드네의 생각의 흐름을 이해하게 됨에 따라 인물의 내적 변화를 강렬하게 느끼는 독자가 있는 반면, 글쓰기 스타일과 어휘 선택 등에 의해 내용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적지 않게 나타난다.[61] 이렇게 볼 때, 원텍스트와 번역텍스트는 각각의 장점을 통해

61 이러한 독자 반응은 95화의 댓글에서도 확인된다. 아리아드네의 생각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 읽어봐야 한다는 내용이 달린다. "starting to have difficulty in scenes when ariadne is both thinking and talking a lot. I have to scroll through so I can follow her train of thought, then go back up and re-scroll to follow what she says!"(dione drew, May 27, 2024). 이 외에도 새로운 글쓰기 스타일이 읽기에 어려움을 준다는 내용과 소통과 이해에 실패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반면, 95화의 또 다른 댓글에서는 언어의 아름다움과 심오함을 강조하며, 셰익스피어를 연상시킨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Every episode I read, I'm blown away anew by the extraordinary beauty, profundity, and gravitas of the language used. Reminds me of Shakespeare except it's so much more appealing.", ExtraOddNari, Jul 23, 2024). 이 댓글의 답글로 대화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글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 댓글을 쓴 이는 인물의 내적 변화가 성찰적이라고 느낀다고 말하면서, 유럽 역사와 고전 문학에 익숙하여 서사 전개를 따라가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언급하기도 한다("Well, I like that the story isn't just progressing but positively evolving - from a revenge-fuelled re-doing of the main character's life to herself becoming a more self-reflective and thoughtful person. I take the side of the language, as I find it enjoyable and more importantly, apt. Big words for big and abstract concepts, if you would rather. I also have some familiarity with European histories and older literatures, so it's not awfully difficult for me to follow it.", ExtraOddNari, Jul 25, 2024) 한편, 소수 의견이지만, 아리아드네가 알폰소와 왕비에게 감화되어 책사로서의 삶을 선택하는 모습을 회귀 이전과 같이 타인을 위한 삶이 자기 이해보다 앞선다며 캐릭터의 후퇴로 지적하는 견해가 영문 플랫폼에 존재한다. 반면, 한국 플랫폼의 베스트 댓글에서는 인물의 선택을 사랑을 위한 행동이지만 선량하고 대의를 아는 모습으로 보면서 주체적

독자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텍스트의 의미를 전달한다고 볼 수 있다. 원텍스트는 서사의 진행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전달하며, 한국 독자들에게 익숙한 장르적 관습을 활용해 인물의 선택과 갈등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반면, 영어 번역은 시적이고 문학적인 표현을 통해 서사의 층위를 확장하며, 독자들로 하여금 텍스트의 상징성과 내적 갈등을 깊이 탐구하도록 유도한다. 이러한 차이는 번역이 각각 다른 독자층의 기대와 경험을 충족시키며, 웹툰이 글로벌 독자층과 만나는 과정에서 새로운 해석적 지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이러한 번역 전략이 특정 독자층에게만 긍정적으로 수용되었다는 점에서 대중성을 약화시킬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

이처럼 「I'm the Queen in This Life」의 번역은 텍스트의 시공간적 배경과 긴밀히 조응하면서 서사적 맥락과 의미를 확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서구 중세를 배경으로 하는 이 장르가 영어권 독자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번역은 단순한 언어적 전환을 넘어 문학적 전통과의 적극적인 대화를 시도한다. 특히 일부 독자들이 셰익스피어적 문체와 표현에 주목하면서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이러한 번역 전략이 작품의 시공간적 배경과 자연스럽게 조응하면서 의미를 더해나가고 있음을 알게 한다. 또한, 여성 인물의 내면과 행위성을 부각시키는 방식은, 로맨스적 요소보다 인물의 정치적 성장과 내적 갈등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5 번역의 우연성과 젠더 서사의 새로운 가능성

「I'm the Queen in This Life」의 번역 양상은 로맨스 판타지 장르가 자본주의 상품으로서 글로벌 독자층과 만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수성을 보여준다. 번역은 텍스트의 정체성을 유지하기보다는, 다양한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되고 소

인 결단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견해 차이는 서사 흐름에 따른 인물의 변화와 사건 전개와 관련이 있지만, 시적이고 문학적인 어조가 독자 해석에 상반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인물의 선택을 명확히 해석하지 않고 상징적이거나 추상적인 맥락으로 받아들일 경우, 독자들 간의 이해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비될 수 있도록 새롭게 구성된다. 번역된 텍스트는 문화적 상품으로 재탄생하며 글로벌 시장의 독자들과 상호작용한다. 특히, 서구 독자들이 익숙한 문학적 전통이나 표현 방식을 적극적으로 차용함으로써, 텍스트는 본래의 전형적 장르 특성을 벗어나 새로운 소비 문화를 반영한 결과물로 변모한다. 이 과정은 웹툰 번역이 단순한 언어적 전환을 넘어, 문화적 협상과 자본 전략의 산물임을 보여준다. 번역된 텍스트는 예측 불가능하고 역동적인 다양한 흐름과 만나게 될 때, 그와 같은 복수의 상황들에 조응하면서 다양한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잠재성을 지닌다. 물론 이러한 번역 과정은 대중적 소비와 만나는 지점에서 일부는 긍정적으로 수용되지만, 일부는 긴장을 유발하기도 한다.

특히, 웹툰이라는 매체는 언어뿐 아니라 그림텍스트가 의미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원텍스트의 다소 거칠고 직접적인 표현이 완화되어 은유적이고 상징적인 방식으로 번역되더라도, 시각적으로 전달되는 인물의 표정과 행동은 언어적 변화를 보완하며 독자들에게 직관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이는 원텍스트가 생산되었던 한국적 맥락의 의미와도 부분적으로 접속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다시 말해, 그림과 언어의 관계 속에서 여성혐오와 젠더폭력의 문제의 강도가 유지되며, 원텍스트와 번역텍스트의 독자들이 공유할 수 있는 해석의 공통 지대가 생겨나게 된다. 이와 같은 과정은 번역 자체가 물질적 행위라는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 또한, 좀 더 작은 범위에서는, 그림이라는 물질적 요소가 언어텍스트와 상호작용하며 번역 행위의 다층성과 다수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번역 텍스트는 그림텍스트의 시각적 정보를 통해 원텍스트의 문제의식을 유지하거나 재해석하며, 원텍스트와 번역텍스트 모두에 잉여적 의미를 생성한다.

「I'm the Queen in This Life」는 단순히 선과 악의 구도로 나뉘지 않는 도덕적 회색 지대를 중심으로 여성 인물의 내적 갈등과 행위성을 그린다. 주인공 아리아드네는 선함으로 완전히 탈바꿈되지 않은 악녀로 형상화되는데, 도덕과 미덕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여성 인물이 처한 현실적 폭력과 억압, 그리고 그 속에서 생존하기 위한 전략을 보여준다.[62] 이러한 해석은 주인공과 대립하는 부정

62 전생에서의 타인의 죽음이나 전염병을 이용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생각을 하는 인물의 모

적 인물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이 텍스트는 성폭행, 여성 살해 등 여성혐오를 둘러싼 다양한 폭력 문제를 반복적으로 서사화하며, 임신한 여성과 어머니로서의 여성 모두 남성들의 이익과 생존을 위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사건을 다룬다. 이는 독자들로 하여금 텍스트를 여성의 안전을 말하는 서사로 이해하게 한다. 독자들은 이를 여성들이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사회적 현실 속 생존과 투쟁의 이야기로 받아들인다.[63] 이는 한국 사회에서의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등장한 담론들과도 접속하며, 그 과정에서 쓰인 로맨스 판타지 장르에 내포된 젠더적 문제의식과 공명한다.

서양을 배경으로 한 로맨스 판타지 장르는 언뜻 한국적 맥락과 거리가 있어 보이며, 한국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기반한 읽기를 독자에게 요구하지 않는 듯하다. 번역 과정에서 여성의 능동성을 더욱 강조하는 방향은 서구적 젠더를 보편으로 삼는 방식으로 읽힐 수 있다는 우려를 낳기도 한다. 그러나 번역 과정에서 이야기의 시공간이 전달하는 물질성, 번역에 관여하는 다양한 행위자들, 독자, 플랫폼이라는 다층적 행위들이 얽혀 의미가 재구성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서구를 기준으로 한 문화적 위계로 해석하는 것은 충분하지도, 적절하지도 않다. 오히려 이는 더 나은 삶을 희망하는 여성들의 욕망이라는 보편적 정동이 다양한 문화적 맥락에서 변주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서구적 요소를 강조하는 방식이 서구 젠더를 보편화하는 위험성을 내포하지만, 이 사례는 다양한 문화적 맥락에서 변주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새로운 해석적 지대를 형성한다. 다시 말해, 영어 번역에서 나타나는 이와 같은 변화는 현지화 과정에서 다른 언어와 문화권에서의 새로운 번역 양상을 상상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I'm the Queen in This Life」의 번역은 웹툰이라는 현대적 매체를 통해 글로벌 소비문화와 연결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우연

습이 이를 잘 보여준다. 물론 완결이 되지 않은 서사라는 점에서, 향후 서사 전개에 따라 인물형상화가 변화될 가능성도 간과하긴 어렵다.

63 「I'm the Queen in This Life」(영어 번역본) 68화의 댓글에서 찾아볼 수 있는 독자반응의 일부를 살펴보면, 여성들의 야망과 비열해 보이는 행동을 이 시대의 여성들이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모든 여성들이 안전을 찾으려 애쓰는 절박한 여성으로 이해하고 있다.

한 효과일 수 있지만, 젠더 서사를 재구성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드러내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기본자료

「언니, 이번 생엔 내가 왕비야」(네이버웹툰, 2022. 8. 11 - 2024. 11. 14), 1-118화(미완, 연재중)

「I'm the Queen in This Life」(Webtoon, 2022. 11. 14. - 2024. 11. 11), 1-107화(미완, 연재중)

「언니, 이번 생엔 내가 왕비야」(네이버시리즈 연재 웹소설, 2020. 12. 06 – 2024. 12. 22), 1-200화(미완, 연재중)

단행본

로만 알바레스, M. 카르멘-아프리카 비달 외, 윤일환 역, 『번역, 권력, 전복』, 동인, 2007, 16쪽.

매슈 레이놀즈, 이재민 역, 『번역』, 교유서가, 2017, 96-104쪽

이주라·진산, 『로맨스』, 북바이북, 2015, 14-21쪽.

서은영, 『웹툰, 시대를 읽다』, 역락, 2024, 123-128, 174-179쪽.

텍스트릿, 『비주류 선언』, 요다, 2019, 224, 234-238쪽.

논문

김수명·이지민, 「웹툰 『신의 탑』 그림텍스트 번역 연구」, 『통번역학연구』 제21권 1호, 통번역연구소, 2017, 1-25쪽.

김수아·고윤경, 「웹소설에 재현된 낭만적 사랑: 웹소설 수용자 인식을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문화』 39권 1호,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24, 189-231쪽.

김순미, 「플랫폼상에서 이루어지는 웹툰 팬 번역의 특징과 가능성-네이버 웹툰(WEBTOON)과 토리코믹스(Torycomics)」, 『통역과 번역』 제24권 1호,

2022, 27-58쪽.
김진규,「무림 웹툰의 문화적 정체성과 영어 번역-한글전용체제에서의 무림 웹툰 감상과 번역을 중심으로-」,『한국근대문학연구』제46호, 한국근대문학회, 2022, 67-106쪽.
김현우,「K-콘텐츠에서 고유명사의 번역 전략: 웹툰 <살인자ㅇ난감>을 중심으로」,『지식과 교양』제15호,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2024, 357-375쪽.
김혜림,「웹툰 한중 번역전략 분석:『신과함께-저승편』을 중심으로」,『통번역학연구』제23권 2호, 통번역연구소, 2019, 49-70쪽.
_____,「플랫폼 기반 웹툰 중국어 팬 번역 고찰 네이버 WEBTOON TRANSLATE를 중심으로」,『중국문학』제120집, 한국중국어문학회, 2024, 415-437쪽.
류수연,「여성인물의 커리어포부와 웹 로맨스 서사의 변화- 로맨스판타지의 '악녀' 주인공 소설을 중심으로」,『한국문학과예술』제39집, 한국문학과예술연구소, 2021, 35-58쪽.
박선주,「기계 안의 유령: 기술, 번역, 젠더」,『한국여성문학학회 2024년 하반기 학술대회 '번역과 젠더' 자료집』, 2023, 9-19쪽.
서은영,「로맨스판타지 웹툰의 부상과 재현: #서로판, #영애물, #집착남물을 중심으로」,『애니메이션연구』제55호, 한국애니메이션학회, 2020, 93-11쪽.
솜쓰리 니랏차다,「웹툰『틴맘』의 태국어-한국어 번안 번역 연구」, 한국외국어대 석사학위논문, 2024, 1-117쪽.
안상원,「한국 웹소설 '로맨스판타지' 장르의 서사적 특성 연구」,『인문콘텐츠』제55호, 인문콘텐츠학회, 2019, 219-234쪽.
이융희,「한국 판타지 소설의 역사와 의미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1-85쪽.
이지선,「캐런 버라드의 행위적 실재주의에서 물질과 실재」,『한국여성철학』제38권, 한국여성철학회, 2022, 117-152쪽.
조성은,「웹툰 팬번역 양상 연구 -『신의 탑』팬덤의 정서적 특징을 중심으로」,『통번역학연구』제19권 3호, 통번역연구소, 2015, 239-263쪽.
최민경,「햄릿과 오필리아의 관계-수녀원 장면과 극중극 장면을 중심으로」,

『Shakespeare Review』 제43권 4호, 한국셰익스피어학회, 2007, 785-808쪽.
태해숙, 「문화연구의 방법론으로서 '젠더번역'에 대한 탐색」, 『젠더와 문화』 제6권 1호, 여성학연구소, 2013, 83-107쪽.

Barad, Karen, "Posthumanist Performativity: Toward an Understanding of How Matter Comes to Matter." *Signs* vol.28, no.3, Spring 2003, pp.801-831.

기타 자료

조익상, 「글로벌 웹툰 시대, 번역을 위한 제언」, 『만화규장각』, 2021. 8. 19; https://www.kmas.or.kr/webzine/cover/28383 (접속일: 2024. 12. 10)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2023 만화 산업백서』, 한국콘텐츠진흥원, 2023.
「美 영향력 확대하는 네이버웹툰…'뉴욕 코믹콘'서도 존재감」, 『아이뉴스24』, 2024. 10. 20, https://www.inews24.com/view/1773753 (접속일: 2024. 10. 22)
「[Feature] Korean webtoons expand globally with different strategies」, 『The Korea Herald』, 2022. 9. 5, https://www.koreaherald.com/view.php?ud=20220905000734(접속일: 2024. 10. 18)
「As webtoons go global, translations prove crucial」, 『Korea Joongang Daily』, 2022. 5. 10, https://koreajoongangdaily.joins.com/2022/05/08/business/industry/Korea-YLAB-YLAB-Earth/20220508140008792.html (접속일: 2024. 10. 18)
「Webtoons find audiences abroad: Services that translate popular Korean web comics have hooked international readers」, 『Korea Joongang Daily』, 2018. 12. 12, https://koreajoongangdaily.joins.com/2018/11/12/etc/Webtoons-find-audiences-abroad-Services-that-translate-popular-Korean-web-comics-have-hooked-international-readers/3055549.html (접속일: 2024. 10. 18)

Abstract

The Performativity of Translation and the Dynamics of Gender Representation
-Cultural Reconfiguration of Romance Fantasy Webtoon

Lee, Haeng-mi

This paper analyzes the cultural meanings generated and transformed during the translation process of the romance fantasy webtoon「Sister, I'm the Queen in This Life」and its English translation「I'm the Queen in This Life」. Utilizing Karen Barad's agential realism, the discussion centers on webtoon translation as a performative act in which various translation agents intertwine to create meaning.

Romance fantasy is a genre that portrays romantic love and women's subjectivity, offering new narrative possibilities by challenging misogynistic representations in the wake of the feminist reboot. This paper examines how the cultural contexts of a romance fantasy webtoon set in medieval Europe are reconstructed as it reaches a global audience. The way misogynistic expressions are mitigated during the translation process weakens the direct tone of the original text. Simultaneously, interactions with visual texts and the intertextual engagement of English literary traditions generate new layers of meaning.

The translation of「I'm the Queen in This Life」demonstrates the potential for universal affects, such as the desire for a better life for women, to be reimagined across diverse cultural contexts. While this may be seen as a serendipitous effect of the global cultural market, it also highlights how the interactions among various forces involved in the translation act reveal the possibilities of generating new meanings.

Key words: Romance Fantasy, Webtoon, Translation, Agential Realism, Cultural Reconfiguration, Gender Representation, Misogyny

논문투고 / 2024.11.22.
심사완료 / 2024.12.03.
게재확정 / 2024.12.08.